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03호 Thursday, September 19, 2024 A

## 차고있던 베베 3000대가 ‘핑’ 일상을 공포로 바꾼 모사드 작전

레바논 최소 12명 사망 2800명 부상  
의심 “베베” 만들 때 폭발물 심은 듯”  
모사드·이스라엘군 공동작전 추정

레바논 전역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beeper·일명 베베)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해 중동에 또 한 번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레바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폭발은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가량 계속됐고, 대다수 피해자는 호출이 울려 화면을 확인하는 도중 ‘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쓰러졌다. 피해자들은 손이나 얼굴, 복부를 다쳤으며 두 눈을 심각하게 다친 이들도 많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보건당국을 인용해 부상자 가운데 약 300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레바논 국민은 이날 집과 수퍼마켓,



길거리, 차 안, 이발소 등 일상 공간에 느닷없이 발생한 폭발의 공포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야 했다. 이날 SNS상에는 수도 베이루트의 수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갖고 있던 가방 속 무선호출기가 폭발하면서 쓰러지는 영상이 돌았다. 한 목격자는 CNN에 “도로가 완전히 파투성이었다. (베이루트) 교외 일대는 마치 좀비 도시를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폭발한 무선호출기는 올해 2월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표적 공격을 우려해 휴대 전화를 폐기하라고 경고한 후 헤즈볼라가 대만 골드아폴로사에 주문해 레바논 전역에 배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헤즈볼라가 5000대의 호출기를 수입했고 이 중 3000대가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 관련기사 2면 박현준 기자 >> 2면 ‘베베테러’로 이어집니다

## “국술원 총재 부자 성추행” 장남 5천만불 소송 고발

서인혁씨 창설 66년 전통무술  
74년 휴스턴 이전 회원 130만  
승계 밀린 장남측 언론 인터뷰  
국술원측 “돈 노린 소송” 반박



기했다”고 전했다. 현재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 텍사스 휴스턴 남부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장남 서씨는 국술원 측에 50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기반으로 전세계 약 130만 명에게 한국 전통무술을 가르치는 ‘국술원’의 한인 총재 가족끼리 경영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술원에서 일했거나 무술을 배웠던 이들은 한인 총재 부자가 성추행 및 성폭행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지역방송 abc13은 텍사스 휴스턴 북부에 본부를 둔 세계국술원(The World KukSool Association)이 경영권을 놓고 5000만 달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술원은 무술인 서인혁(85·사진) 총재가 1958년 한국에서 창립했다. 이후 서 총재는 1974년 미국으로 이민과 휴스턴 북부 톰볼에서 국술원 본부 겸 무술장 운영을 시작했다. 세계국술원협회는 미국 전역과 세계 27개국에서 국술원 전통무술을 하고 홍보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서 총재의 장남 서순진씨는 최근 국술원을 상대로 5000만 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국술원은 서 총재와 차남 알렉스 서씨가 이끄고 있다.

서순진씨 측 변호인 알렉스 폴은 “의뢰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술원의 차기 총재를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은 국술원 측의 부당하고, 계약 위반, 고용 문제 등을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술원 측 변호인 데일 제퍼슨은 “(장남) 서씨가 경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장남 서씨 측은 아버지 서 총재와 동생의 감춰졌던 성폭행 등 비위 행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 가족의 베이비시터로 일했던 데니스 브라운은 “학생 시절 국술원에서 무술을 배우다 서씨 가족의 베이비시터로 일할 당시 차남 알렉스 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당시 매그놀리아 경찰국에 차남 서씨를 신고했지만, 당시 혐의를 부인한 차남 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국술원을 상대로 서인혁 총재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소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술원측 변호인 제퍼슨은 자체 조사관을 고용해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성폭행 등 위법 행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남 서씨가 아버지 서 총재와 차남 서씨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를 노린 소송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본재판은 연방준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 금리 0.5%p 내려 4.75~5.0%로

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18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기존에 2.00% 포인트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췌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6면 ‘금리’ 로 계속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받지 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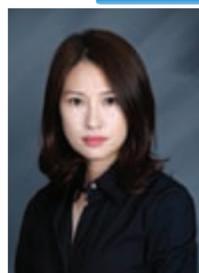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대선 50일 앞 암살시도 ... 트럼프 “해리스 탓” 책임론

“여기 범죄 현장입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선 안 됩니다.”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입구. 현지 경찰이 기자의 접근을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이틀간 기자가 찾은 사건 현장에는 지역 보안관과 경찰,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팜비치 국제공항과 맞닿아 있어 차로 5분이면 닿는 트럼프 소유의 해당 골프장은 진입로 양방향 경찰이 막아선 채 출입을 통제했다. FBI 요원들은 암살 미수범인 라이언 웨슬리 라

우스(58)가 머무르며 몸을 숨긴 덩굴 주변 현장 감식에 집중했다.

골프장에서 다시 차를 타고 10분쯤 달려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리조트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 초입부터 리조트 입구까지 경찰 검문 검색이 3중·4중으로 겹겹이 이뤄졌다. 골프장 입구에서 만난 트럼프 지지자인 마이클 진(66)은 “선거가 과열됐다.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지지자인 토머스 웰스(78)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범인인 라우스는 선거 기간에도 트럼프가 플로리다 자택 인근의 골프장

**범행 현장 미국 팜비치 가보니**  
12시간 잠복한 범인, 도주 끝 체포 경찰, 골프장 입구부터 출입통제 현장선 촬영장비 ‘고프로’ 등 발견 주민들 “선거 과열” “의견은 투표로”

에서 골프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장 내부가 보이는 철장에 저격용 총기를 설치하고 암살하려 했다. 비밀경호국은 범인이 12시간 동안 도난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채 트럼프 저격을 위해 한 곳에 머물렀지만, 트럼프가 직전 홀에 갈 때까지도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비밀경호원의 총격을 받은 범인은

총기를 버리고 범행 현장 주변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낫산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인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골프장에서 61km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됐다.

범행 현장에선 옛소련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SKS 계열의 소총과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한 촬영 장비 ‘고프로’가 발견됐다. 실탄이 장전된 소총엔 저격용 망원 조준경이 장착돼 있었다.

트럼프는 암살 미수사건 이후 엄지를 든 사진을 공개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트럼프는 16일 폭스뉴스 디지털 인터뷰에서 “(암살 시도범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레토릭(트럼프에 대한 표현)

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을 51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진영 싸움’ 전략을 이어가는 트럼프의 경우 중도 확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만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1%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6% 포인트 차로 앞섰다. 지난 10일 두 사람의 TV토론 전 조사에서 나타난 3%포인트보다 격차가 커졌다.

팜비치=김형구 특파원

## 삐삐 속 ‘폭탄 트로이 목마’ ...배터리 옆 원격 스위치 심었다

무려 2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beeper·한국의 일명 삐삐) 폭발사건은 이스라엘이 사전 설치한 폭발물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서방국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폭발사건의 배후라고 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폭발한 무선호출기는 헤즈볼라가 대만 골드아폴로사에 주문해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출기의 배터리 옆에 1~2온스(28~56g)의 폭발물이 들어가 있었으며 이를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스위치도 내장됐다고 한다. 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폭발 직전 수초간 신호음을 내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됐다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헤즈볼라 당국자들에 따르면 폭발 직전 호출기에는 헤즈볼라 지도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구급대원이 무선호출기 폭발 사건으로 손과 배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현재 10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오른쪽 사진은 폭발 후 남은 무선호출기 잔해.



[AP=연합뉴스, X 캡처]

보낸 메시지로 보이는 알람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알람은 지도부의 메시지가 아닌 폭발을 활성화하는 신호였고, 곧이어 호출기가 폭발했다.

실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과 외신이 전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

발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던 호출기에서 알람음이 난 뒤 피해자들이 호출기 화면에 뜬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에 일어났다.

앞서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도청이나 위치 추적

피할 목적으로 무선호출기 사용을 늘렸다. 이와 관련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의 표적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폐기를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대만 골드아폴로사에 무선호출기 5000대를 주문했고, 이를 레바논 전역의 조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일부는 이란과 시리아 등 동맹국에도 전달됐다.

이에 대해 대만 골드아폴로사 측은 폭발에 사용된 호출기는 자신들이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와 미국 CNN 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성명에서 폭발한 호출기는 자사 생산 제품이 아니고, 골드아폴로사와 상표권 계약을 맺은 유럽의 유통사가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의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생산 단계에서 기판을 개조했기 때문에 이번 소행을 탐지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이 설령대로라면 모사드가 아예 호출기 제조 공장에 침투해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심었을 수 있다.

첩보영화화 될까봐 하는 이번 사건으로 과거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비밀 작전 수법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사드는 암살 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십여 년 전부터 통신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1972년 뮌헨 올림픽 직후 프랑스 파리에 주재했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부 마흐무드 함사리 암살에는 유선전화기 동원됐다.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에 대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함사리 자택의 전화기에 폭발을 설치한 것이다. 96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꾸민 하마스의 사제폭발물 기술자인 야히야 아야시 암살에는 휴대전화기가 사용됐다. 아야시는 이스라엘에 포섭된 팔레스타인인이 건넨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박현준·한지혜 기자

▶1면 ‘삐삐테러’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호출기에는 ‘트로이의 목마’가 숨겨져 있었다. NYT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수입한 대만 기업 골드아폴로사의 무선호출기(AR924 기종)에 소량의 폭발물과 원격스위치 등을 심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골드아폴로사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출기 제조는 헝가리 부

다페스트에 기반을 둔 ‘BAC 컨설팅 KFT’라는 업체가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부다페스트의 BAC 주소지에는 회사 이름이 A4 용지에 인쇄돼 유리문에 붙어 있었을 뿐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폭발 시점과 관련해 미국 약시오스는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에서 최근 헤즈볼라가 무선호출기 작전을 논

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지난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당장 작전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헤즈볼라는 18일 성명을 통해 “레바

논 국민을 학살한 적(敵)에 대한 가혹한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헤즈볼라가 직접 보복하거나 이란-하마스-후티(예멘) 등 친이란 ‘저항의 축’이 함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공격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우리는 이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약시오스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호출기가 폭발하기 몇 분 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레바논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날씨 (°F)**

20일(금)	83-65	☁	23일(월)	75-60	☀
21일(토)	82-65	☁	24일(화)	75-64	☁
22일(일)	75-61	☁	25일(수)	78-66	☁

9월 19일(목) 82~6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별 \$660,000  
저렴 가격/분양/최대 리모델링  
**SOLD**

**축**

**창간 23<sup>rd</sup> 기념**

〰〰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과 한인 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언론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한미여성재단** 회장 강명희 외 회원 일동

# VA 교육부 셀폰 가이드라인 발표

버지니아 교육부가 새로운 공립학교 셀폰 정책 발표를 통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글렌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학생들의 셀폰 중독 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7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각종 세부 규정이 늘어나 27페이지로 증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과 시작과 동시에 셀폰을 끄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간 벨이 울릴 때 비로소 셀폰을 다시 켜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새 규정에 의하면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 휴식 및 이동시간에도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점심과 휴식시간에 셀폰

## 점심-휴식시간에도 사용금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뤘으나 교육적 미래를 고려해 결국 사용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 및 교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도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는 교육철학에 기초해 전면적인 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어 미숙 학생과 장애인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시간에 셀폰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세부 심의 과정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 시기를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버지니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각 지역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조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별도의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은 주정부 가이드라인과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 워싱턴청소년재단 그룹 멘토링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비결'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범수)이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이달 멘토링 프로그램에 인구질병학 에스더 노 교수를 초청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릴랜드 락빌 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노 박사는 "청소년들의 정신은 성인들과 달리 민감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염려와 걱정, 차별을 당하는 경우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 박사에 따르면 불면, 고립, 식욕 부진,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학업을 포함한 친구 관계, 전반적인 부분에서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해 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에의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사장 김범수 박사는 "새 학기를 맞아 공부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점검할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 멘토링 그룹은 내달 19일(토), 사과 농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가을학기 동안 주간과 토요일, 영어·수학 과외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240-722-9198 김윤미 기자



## 조지메이슨 대학 게임박람회 개최

IT 관련 교수진 등 전문가 대거 초청, 20-21일 양일간

조지메이슨 대학이 오는 20일(금)부터 이틀간 게임 박람회 '게임 메이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스포츠 클럽,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 등과 공동으로 예술센터에서 여러 게임 전시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행사는 원래 매년 2월에 열렸으나, 학생 및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아 올해에는 수개월 앞당겨 연간 2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박람회는 인기 높은 컴퓨터 게임 토너먼트와 게임 설계 시연 등 각종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행사는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IT 관련 교수진과 버지니아 게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대

거 초빙돼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박람회 참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16세와 17세의 경우 성인과 동반해야 한다.

행사는 20일 오후 1-9시, 21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에 열린다. 조지메이슨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지만, 외부인들은 입장료 19달러를 내야 한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https://si.gmu.edu/gamemas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 소매업체 캐시백 수수료로 연 9천만불 수익

건당 50센트~3불50센트까지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이 부과 업체들 "서비스 수수료 발생"

소매업체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캐시백(현금 인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캐시백 서비스 요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이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크로거, 알버트슨,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월그린, CVS, 월마트, 타깃 등 8개 소매업체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소매업체 중 캐시백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크로거였다. 달러트리는 캐시백 요청 시 1달러를 달러트리의 계열사인 패밀리달러는 1달러50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달러제너럴에서 캐시백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서 1달러에서 2달러50센트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남가주에서 흔한 푸드4레스나 랍프스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크로거의 일부 매장에서 100달러 미만은 50센트, 1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는 3달러50센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랍프스의 캐시백 수수료는 50센트였다.

일부 매장에서는 캐시백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수차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CFPB는 보고서에서 한 소비자의 예를 들어 소매업체의 캐시백 제한이 50달러였고 수수료는 2달러여서 100달러 인출하는데 4달러의 수수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지점이 많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이른바 '금융 사각지대'의 소비자들이다. 주거래 은행 지점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소매업체의 캐시백 서비스가 가장 편

리한 현금인출 방법인데 캐시백 수수료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매업체들은 캐시백 수수료로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크로거 측은 캐시백 수수료는 현찰 거래에 대한 관리비용을 매기기 위한 것일 뿐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달러트리 또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캐시백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소매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매우 적을 것이라며 소매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CFPB는 소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다만 CFPB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캐시백 수수료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절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축**  
**창간 23rd 기념**  
동포 사회를 위한  
원칙과 정의가 있는 언론을 염원하며  
**중앙일보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VSOK) 회장 우태창

# ‘경찰 총격 사망’ 양용씨 시의회서 공식 추모

시위원의 유족초청 추모는 최초 소토 의원 “억울한 죽음 밝혀야” 한인 정치인들 합구와 대조적 존이 의원, 짧은 위로 말 전달

LA시의회가 처음으로 LA경찰국(LAPD) 경관에 의해 살해된 양용씨를 공식 추모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정확히 139일 만이다.

17일 LA시의회 회의장에는 양용씨의 유가족이 의원석 단상에 섰다.

유가족을 의원석 단상으로 초대한 건 한인 시의원도 아닌 조선의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의원(13지구)이었다.

그는 유가족을 옆에 세워두고 긴 추도의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양용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감정을 그대로 묻어나는 듯했다.

마르티네즈 의원은 “양극성 장애를 가졌던 젊은 청년이 의료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집 거실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공정한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가족과 커뮤니티 모두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고 양용 씨의 유가족이 17일 LA시 시의회에서 소토-마르티네즈(오른쪽) 시의원 과 생전의 양용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있다. 김상진 기자

그가 추도의 글을 읽는 동안 시의회 중계 화면에는 양씨의 생전 모습과 단란한 가족사진들이 연이어 게시됐다.

양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의 추모 사진 밑에는 한인 시의원 대신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의원이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그는 무려 3분 가까이 추도의 글을 읽었다. 시 지역구 의원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시민의 가족을 시의회에 초청해 공개적으로 추모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가 유가족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가족과 주변에 경찰 폭력으로 숨진 분들을 본 적이 있다”며 “양씨 가족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의 이례적인 유가족 초대는 이번 사건에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합구해온 행보와 극명하게 대조된 광경이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의 목소리와 감

정이 시의회장에 가득해질 때 포디엄에는 한인 40여명이 피켓을 들고 시의원들 앞에서 있었다. 피켓에는 경찰의 무분별한 대응과 양용의 죽음을 애도하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당국을 향한 집묵의 외침이었다. 한인 언론 기자들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추도의 글이 끝나자 시의장(폴 크레코리안)이 휴정 선언 의사를 묻는 순간 그동안 성명 하나 내지 않았던 한인 존이 시의원(12지구)이 슬그머니 마이크를 잡았다.

이 시의원은 “유가족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발언한 뒤 마이크를 내렸다. 10초 남짓한 메시지였다. 유감이 담긴 그의 메시지가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회에 모인 한인과 취재진을 의식한 것인지는 물론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유가족과 이날 시의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이 시의원의 메시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양용의 아버지 양민씨는 “지금까지 용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을 보이고 연락해온 한인 선출직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며 “이제라도 선거를 돕고 모금 활동을 해준 한인들의 정성을 되새겨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시의원 역시 형식적인 발언이었는지, 시의회 후에 따로 유가족을 찾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 그가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환하게 웃음을 보였던 건 다른 순서 때였다. 그는 이사회 법적 다름 등으로 논란이 된 LA축제재단 관계자들 옆에 서서 시의회의 감사장을 전달하며 한인 사회와 친밀함을 표시했는 뿐이다.

그는 이후 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유가족과 한인들이 진행한 피켓 시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인들을 끝까지 쫓아간 마르티네즈 시의원 사무실 관계자들뿐이었다.

마르티네즈 의원과 회기 종료 후 짧은 인터뷰를 나눴다.

그는 “있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죽음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라며 “한인들과 함께 엄정한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는 한인 정치인이 해야 했던 말이다. 민감한 커뮤니티 이슈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인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구호가 헛헛한 하루였다. 최인성 기자

## 현대로템 메트로 전철 공급 공익단체가 입찰법 위반 소송

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노동공익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가 LA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MA 측은 소송 취지는 LA메트로가 현대로템과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방-주 입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LA메트로에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올림픽에 대비해 개통 예정인 D라인에 필요한 신규 전철 공급을 위해 현대로템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신규 전철 180여대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JMA가 LA수퍼리어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조항인 노동자 급여 및 처우와 ‘소외된 노동자’ 채용 조항을 누락시켰다. 이 경우, LA메트로에는 규정상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LA메트로 측은 재입찰 대신 현대로템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JMA는 법원에 LA메트로 측이 규정대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재입찰하고, 다른 업체의 제안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준 기자

## 70대 한인업주 절도범에 폭행당해 중상

시애틀 지역서 편의점 운영 고편드미 3만달러 성금 모어

시애틀 캐피톨힐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70세 한인이 절도범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

이웃 주민들과 고객들은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

17일 지역 매체 ‘코모뉴스’에 따르면 찰리 김(70-사진)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제이즈 퀵 스톱(J’s Quick Stop)’에서 맥주를 훔쳐 달아나는 남성을 가게 밖 인도에서 막아 세우다가 용의자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피해자의 아들 준 김씨에 따르면 김



씨는 턱, 입, 그리고 눈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특히 눈이 심하게 부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아들 준씨는 17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가게에서 절도 사건은 자주 발생하지만, 이렇게 크게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시애틀 소방국은 김씨를 응급 처치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시애틀 경찰국은 이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김씨는 집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씨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눈의 부기는 많이 가라앉았고, 어지럼증도 조금씩 나아지며 차도를 보인다”며 “다만 아버지가 언제 다시 가게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씨 가족은 2007년부터 시애틀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준씨는 “우리 가족은 거의 매일 이 가게를 운영하며 팬데믹 기간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내가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시카고에서 세무 전문가로서 사업 환경에 대응하는 세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 전국대회

시카고서 25일부터 3일간  
전문가로서 역량강화 목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세무사 단체인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 이하 협회)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시카고에서 전국적인 컨벤션 행사를 갖는다.

협회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LA에서, 2022년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협회는 “올해 시카고 대회 주제는 ‘Empower Up’으로 다양해지는 사업

환경에 대응해 세무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한인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고객 비즈니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 및 자산 관리 플래닝’을 중점으로, 실질적인 전략수립 노하우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다뤄질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 세법 변경 및 미주 동포 세금 변화(김형주 세무사) ▶효율적인

상속 플랜 및 자산보호 플랜(셀리 정 변호사) ▶은퇴플랜(김경은 CFP) ▶세금 세이빙 헬스 베니핏(Jocelyn Ko CFP)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세금 플래닝(오병혁 세무사) ▶비즈니스 세금 플래닝(오세란 세무사·CPA) ▶AI(인공지능 프로그램)를 활용한 세금 플래닝·Resolution·CFO 관리(정승욱 세무사·김재원 세무사) ▶가상 화폐 관련 과세와 장부정리(이수련 세무사) 등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 문의는 Info@nakaea.org 또는 703-844-0355. 박종원 기자

## 백악관서 한가위 첫 축하

바이든·해리스 서면으로 축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추석 기념행사에서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진행된 행사는 전·현직 백악관 한인 직원의 주도로 열렸다. 백악관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참석한 가운데 설 축하 행사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추석을 따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석은 한국 공동체의 풍부한 유산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보편적 유대감을 떠올리게 한다”며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왔지만, 모두 미국인이다. 가족이 이민 온 지 몇 세대가 지났든, 여러분이 직접 이민을 왔든, 여러분 각자는 한국 공동체의 활기와 문화, 공헌을 미국의 태피스트리(여러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에 엮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도 서면 축하에서 “추석은 가족의 중요성, 가을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조상의 넓은 어깨 위에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며 “한인은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고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17일 오후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사상 첫 한국 추석 축하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 넷플릭스 요리사 대결 예능에 한인 유명 셰프 2명도 출전

에드워드 리·선경 롱기스트  
다음달 8일까지 12회 방영

요리사 100명이 맞붙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미주 한인 셰프 3명이 출전한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요리사가 대거 출연하는 가운데 미주 한인 셰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공개됐다. 제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 80명이 명성을 지닌 ‘백수저’ 셰프 20명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경쟁하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최현석, 여경래, 정지선 등 한국 유명 셰프가 포함된 ‘백수저’에 한인 셰프 2



명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에드워드 리, 선경 롱기스트 셰프가 그 주인공이다. 리 셰프는 미국 요리 경연 프로그램 ‘아이언 셰프’의 2010년도 우승자다. 켄터키주에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요식업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수상 후보

에 9번이나 이름을 올린 실력자다. 리 셰프는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국민 만찬에 초청돼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선경 롱기스트 셰프 역시 경연대회 출신이다. 지난 2013년 푸드 네트워크 요리 경연 프로그램 ‘레스토랑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했다. 이후 라스베이거스의 ‘제이드 퓨전’ 총괄셰프를 거쳐 지금은 개인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를 통해 아시아 음식 조리법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흑수저 셰프에는 식당 사장, 요리 유튜버, 급식실 조리사 등 각계각층의 요리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한인 셰프 오스틴 강도 있다. 김경준 기자

## 한인 탈영병, 살인 혐의 군사재판 회부

유죄 인정 시 최고 사형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탈영해 택시기사를 죽인 한인 상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시작한다.

지난 16일 군사재판 스타&스트립스는 육군을 인용해 이날 루이스·맥코드 합동지시 군사법원이 조나단 강이(25) 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군사법원에서는 이씨의 살인 혐의 등 예비심문에 열렸다.

강이씨는 아동 성폭행 및 성 학대 혐의로 재판 출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월 14일 부대에서 탈영했다. 그는 탈영과

정에서 택시 기사인 니콜라스 호케마(3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강 이씨에게는 살인, 탈영, 체포 불응 및 저항, 명령 불복종 등 혐의가 추가됐다. 육군의 군사법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 이씨의 유죄(고의살인)가 인정되면 군법에 따라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강 이씨가 탈영한 동안 재판을 열어 아동 성폭행 등 혐의에 64년형을 선고했다. 육군 측은 군사법원이 강 이씨 살인혐의 기소 재판 진행을 위해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수수입 \$11,000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

**에안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맥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수수의 \$218,000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수수의 52만불, 8백만불

**Beer & Wine Shop**  
35만불, 주2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 갤럽 “호감도 트럼프 41%→46% 상승, 해리스 47%→44% 하락”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남부의 핵심 경합주 조지아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격차가 종전보다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조지아주립대와 함께 지난 9~15일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를 각각 받았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이들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는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



첫 TV 토론하는 트럼프와 해리스

퇴하기 전 실시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가상대결 결과 51% 대 46%, 5%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그 격차가 줄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5%포인트 앞서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권자와 백인, 고령층에서 견고한 지지세를 보였다.

공화당원의 90% 이상, 백인 유권자

약 3분의 2, 65세 이상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았고, 백인 여성 유권자의 65%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의 86%, 흑인 유권자 77%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흑인 유권자 12%는 여전히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는 이번 대선의 최우선 이슈로 ‘경제·인플레이션·생활비·일자리’ 등 경제 문제를 꼽았다. 모두 트럼

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이슈들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쟁점화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를 대선의 최우선 이슈로 꼽은 응답자는 18%였고, 낙태·이민 등 이슈 역시 한 자릿수에 그쳤다.

북부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주를 대상으로 한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48%)이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5%)보다 우위에 있었다.

지난 11~14일 유권자 1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오차범위 ±4%포인트)된 이 조사에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후보는 2%를 받았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아직 위스콘신주 투표 용지에 이름이 남아있는 상태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8%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1천7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3~15일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46%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8월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 이전인 6월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 7월 등판한 이후 8월 조사에서 47%의 호감도를 기록하며 ‘반짝’ 올랐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이번에는 44%로 하락했다.

비호감도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54%,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로 비슷한 수준이다.

부통령 후보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7%, 19%가 각각 공화당 JD 벤스 상원의원, 민주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두 부통령 후보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벤스 의원은 호감도 36%, 비호감도 47%를 기록했다. 월즈 후보의 호감도는 41%, 비호감도는 40%였다.

## 트럼프, 세금공제한도 철폐 시사 민주당 강제 지역 표심 겨냥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만들어진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한도도 철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유니언데일에서 개최되는 유세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면서 “나는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SALT를 되돌릴 것이며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SALT는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의 약자다.

SALT 공제 한도는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납세자당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이 정책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민주당 지역에 타격을 줬으며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세금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같은 이유로 공화당은 세금 공제 한도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나이가 공화당은 세금 공제 한도 설정이 트럼프 감세에 따른 재원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 정책이 폐기될 경우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세금 공제 한도 철폐를 시사한 것은 민주당 강제 지역에서의 상·하원 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면서 일축했다.

뉴저지가 지역구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SALT 공제 한도를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그것 때문에 롱아일랜드를 포함해 많은 뉴욕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 플라스틱 오염 여파일까... ‘밀폐용기 대명사’ 타파웨어 파산 위기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타파웨어와 일부 자회사가 17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타파웨어는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의 자산 가치를 5억~10억 달러로, 부채 규모는 10억~100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수가 많게는 1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타파웨어는 지난 수년간 수요 감소와 재정 손실에 시달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팬데믹 종식후



엔 밀폐용기 수요가 다시 줄고 전 세계적으로 합성수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운송비가 치솟으면서 수익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 골드먼 타파웨어 최고경영자(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으로 인해 지난 여러해 동안 회사의 재정상태가 혹독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타파웨어는 2021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타파웨어

는 작년 채권단과 채무조정제에 합의했고, 채권단은 타파웨어측에 일부 여유를 주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경영 상황 악화가 지속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했다.

장기적인 추세도 타파웨어에 불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투자업체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재너 스트리터 대표는 BBC방송에 “타파웨어에 좋은 시절이 끝난지 꽤 됐다”고 지적했다.

스트리터 대표는 “구매자 행동의 변화 때문에 밀폐용기에 인기가 떨어졌다”며 “소비자들이 음식을 저장할 때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더 의식적인 방안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 1번 ‘금리’ 에서 이어집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

인트 높였고,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LOTTE <sup>PLAZA</sup>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SEP. 19th - SEP. 26th, 2024  
게맛살하면 역시!

# 오자끼 게맛살

부드럽고 탱탱한 스페셜

• OSAKI IMITATION CRAB STICK •



~~\$8.99~~

EA(1.1LB)

# \$4.99

수량을 오탈차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19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77 Frying Pan Dr. Sterling  
VA 20155

Chesapeake, VA  
5900 Chesapeake Dr. Chesapeake  
VA 23030

Charlottesville, VA  
12000 Market Street  
Charlottesville, VA 22904

Annandale, VA  
52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301 Lakeside Court  
Ashburn, VA 20147

Hindson, VA  
4900 Lakeside Court  
Hindson, VA 20119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ville, MD  
8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0 New Line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1211 Montebello Rd.  
Gaithersburg, MD 20878

# AI 초격차 노리는 MS 블랙록·중동자본 손잡고 40조 인프라 펀드 조성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AI)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선다. AI 기술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경쟁은 빅테크 사이에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MS, 블랙록,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설립한 기술회사 MGX는 '글로벌 AI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GAIP)'을 출범시켜 300억 달러(약 4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펀드 규모는 향후 추가 투자자 모집과 부채 금융(debt financing) 등을 활용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33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00억 달러 규모로 펀드를 키운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블

랙록 사상 최대 규모의 대체 투자 펀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펀드의 주된 투자 분야는 AI 서비스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사용량을 뒷받침할 발전 시설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는 미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협력사로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GAIP 참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펀드의 투자는 미국 내에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자금은 미국의 '파트너 국가'에 투자할 것"이라며 "다양한 기업에 (인프라를) 비독점적으로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와 블랙록의 'AI 인프라 동맹'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MS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 인프라에 선제 투자해 구글,

MS, 최대 운용사·UAE 우군 확보 메타·구글도 AI 인프라 투자 박차



아마존 등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려고 한다.

지난 3월 MS가 오픈 AI와 함께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6년간 건설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도 이 전략의 일부다. 블랙록도 최근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분야 등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프라 사업에 특화된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을 125억 달러(약 16조 6500억원)에 인수했다. 2009년 블랙록이 바클레이즈의 ETF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다. GIP는 이날 발표된 GAIP에도 참여한다.

블랙록과 손잡은 MS는 생성AI 주도권 경쟁의 동력을 얻게 됐다. 자산운용규모 10조6500억 달러(약 1경4000조원·2분기 말 기준)인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함께 조성한 펀드는 향후 AI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에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사장은 "AI 인프라에 필요한

자본,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생산은 하나의 기업이나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수준을 넘어선다"며 "파트너십(GAIP)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안보,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MS,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간 경쟁은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조성하는 대규모 AI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을 10만개 이상 설치한 시설이다. 이 매체는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인 '라마 4(Llama 4)'를 해당 클러스터를 활용해 개발한다고 전했다.

윤상언 기자

## 공룡 중국 조선사 나오는데...K조선은 인력난

전세계 선박 발주 60% 차지한 중국

중국 1, 2위 국영조선소가 합병을 추진하는 등 중국 정부가 '조선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수주를 독식하는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최근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중국의 거센 질주에 국내 조선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은 중국 1위 국영조선사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2위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이 흡수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병으로 만들어지는 신설 국영 조선사는 수주 잔량 기준 세계 조선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

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 위원(약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두 회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진을 간소화하고 수주 경쟁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 조선 업계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발주량은 3322만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체 발주량의 66.1%인 2197만CGT를 수주했지만 한국은 21.5%인 715만CGT 수주에 그쳤다. 2002년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8%에 불과했던 중국의 선박 생산량이 폭발

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조선업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벌크선을 중심으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했다. 한국 대비 낮은 가격을 앞세워 저가수주로 일감을 채웠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 조선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앞세워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기준 2021년 8% 수준이었던 중국의 수주 점유율은 2022년 30%까지 올랐다. 선박 발주 역시 중국 선사 중심에서 최근엔 글로벌 선사로 확대되는 등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 역시 오는 2025년

까지 전 세계 친환경 선박의 50%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조선업계와는 달리 국내 조선업계는 고민이 깊다. 조선업 수파 사이클로 3년 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 업계가 비싼 배를 선별 수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숙련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대부분 짧

은 기간 교육을 받고 생산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숙련공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소를 떠난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시기에 조선소를 대거 떠났다. 현재 조선업계가 이들 인력을 다시 불러오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상당수는 원전이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미 일을 하는 데다, 구조조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섣뜻 복귀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올해부터 연평균 1만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영우 기자

## 인스타그램, 18세 미만 계정은 아무나 못 보게 차단한다

딥페이크·폭력 막을 최소 안전장치

앞으로 18세 미만 인스타그램 이용자 계정은 '비공개'로 일괄 전환된다. SNS(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

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만든 계정은 모두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설정된다.

10대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다.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해당 계정에 올라온 콘텐츠를 보거나 상호 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은 자신의 계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수락할 수 있다. 개인 메시지(DM) 역시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부모는 감독 기능을 켜고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10대 계정 설정을 끄려면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10대 계정 설정을 끌 수 있지만 부모가 감독 기능을 켜고 이에 관여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선정적·폭력적이거나 자살·자해에 관련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는다. 일례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이나 미용 시술을 홍보하는 콘텐츠 등에서 제한한다. 매일 60분마다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을 받는다. 오후 10시부

터 오전 7시 사이에는 '수면 모드'가 켜지면서 알림이 음소거되고 DM에 대한 자동 답장이 전송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메타는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방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미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SNS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1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SNS 유해 콘텐츠로 범죄 피해를 입은 10대의 가족들에 사과했다. [AP=연합뉴스]

유해 콘텐츠로 피해를 본 청소년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어현희 기자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빌딩 3층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축

창간 23<sup>rd</sup> 기념

워싱턴지역 한국언론의 정상으로 성장한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에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MD 몽고메리 한인회 회장 김용하

# 국민투표제·야간집회 금지 ... 효력없는 법률, 낙태죄 외 많다

헌법불합치 뒤 개정 안된 법률 21건  
1년내 개정 안할 땐 효력없는 법도 6건  
"여야, 싸우더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33조)·지방공무원법(31조)·군인사법(10조) 등 관련 법률 조항이 한꺼번에 무효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영원히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2024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은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다. 여야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정쟁에 매몰된 결과다.

현재가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 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재는 해당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현재는 곧바로 해당 법규를 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 넘긴 법률

법률명·조항	현재 선고일자	내용	개정 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23조①항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2010년 6월
형법 269조①항, 270조①항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처벌	2020년 12월
보안관찰법 6조②항, 27조②항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무기한의 변동신고 의무 부과	2023년 6월
국민투표법 14조①항	2014년 7월 24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주신고된 투표권자로 제한	2024년 5월
국가공무원법 33조	2022년 11월 24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규정	2024년 5월
군인사법 10조②항	2022년 11월 24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규정	2024년 5월
지방공무원법 31조	2023년 6월 2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규정	2024년 5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③항, 23조③항	2022년 12월 22일 2023년 3월 23일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2024년 5월

효를 하는 '단순 위헌' 대신 2024년 5월 31일까지 법률을 살려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결정문엔 이례적으로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적었다. 하지만 국회는 1년6개월 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배제 규정 전체가 사라졌다.

법률안이 없던 건 아니었다. 지난해 5월과 6월 당시 김용환 국민의힘 의원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배제 기간을 각각 10년과 15년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임

용 배제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진출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받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의 주(主) 전장이 됐기 때문이다.

여야의 정쟁 속에 효력이 사라진 법은 한둘이 아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이미 2021년 1월부터 자동 폐지됐다. 낙태 처벌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국민투표제는 2016년부터 불가능해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조항을 국회가 개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실효(失

효) 법률의 개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4건→8건으로 늘었다. 1년 내 개정 기한이 도래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도 6건이다. 여야가 현재처럼 정쟁만 일삼으면 1년 내 효력이 상실되는 법률은 14건에 이르게 된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주변 집회 금지 규정 역시 지난 6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금지 규정'과 함께 사라졌다.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결정은 대통령 관저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는 취지였는데, 법규 효력이 아예 사라져서 그때그때 다른 법규정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

했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16건(2022년 11월)→19건(2023년 10월)→21건(2024년 9월)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속도에 비해 법 개정이 더딘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밀린 속제가 있으면 합심해서 처리하곤 했는데, 이제는 각 당 지도부가 오더를 내리지 않으면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여야의 방치 속에 가족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한 민법 규정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을 정해 놓은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개정 시한이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5월로 다가온 탓이다. 이들 법규도 개정 시한을 넘기면 효력이 사라진다. 8촌 이내 혈족혼(婚)과 혼외자 출생신고 모두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다.

장영수(헌법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부 규정은 살리고 과도한 부분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인데, 국회가 날짜를 지키지 않아 낙태죄도, 국민투표제도 죄다 '입법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 야당, 김건희특검법 두 번째 강행 ... 오늘 본회의 상정 예고

### 해병특검·지역화폐법도 처리 계획 윤 대통령 다시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8일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 상태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추석 탑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

이 가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를 겨냥해 "국민은 김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질문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정치는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 스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합찬 ▶명품 수수 ▶순직해병 사건 수사 구명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으로 면죄부를 줬고,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여사의 연이은 공개 행보도 민주당은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장애 아동 거주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했다. 여권에서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충고하는데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 단 한마디라도 했느냐"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찬성표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및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이다.

강보현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브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 27가지 야채 | 68가지 허브 및 해초 | 29가지 곡물과 버섯

###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출시 기념

NEW 효소환 구매 시 특별한 선물과 효소환 2주분 무료 증정!

9/30일  
까지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과체중이신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 한국서 7조 번 애플, 법인세 500억... 나이키는 한푼도 안냈다

## 국내 외국계 기업 법인세 꿈수

5조 이상 번 7곳 지난해 법인세 0원 애플, 매출원가 95% 잡아 이익 조정 맥도날드, 본사 로열티 빌미로 회피 법인세 부과해도 불복해 소송 걸어

아이폰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애플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7조3300억원이 었지만, 영업이익은 860억원(1.2%) 수준에 불과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영업 이익률이 시중 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기업이다. 매출의 95.3%(6조9900억 원)를 매출원가(상품을 만드는 데 든 원가)로 잡아 회계상 영업이익을 낮춘 덕분이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대신 해외에서 들여 오는 점을 절세(絶稅)에 심본 활용했다.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에 과세한다. 그 결과 지난해에 낸 법인세는 500억원이었다. 같은 해 매출 8조2200억원을 올린 네이버는 41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코리아의 실적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과 비슷한 데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가 애플보다 법인세 8배 더 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부터 제조업, 식음료 업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외국계 기업의 ‘조세(법인세)회피’ 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이 국정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고액 기준 매출 5조원을 넘긴 외국 법인 10곳 중 4곳꼴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 됐다.

해당 기간 매출 5조원 초과 기업을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 113곳 중 법인세를 내지 않은 회사



는 15곳(13%)이었다. 반면에 외국 법인(본사가 외국)은 16곳 중 7곳(44%)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회사당 법인세 평균 부담액도 내국 법인은 2630억원이지만, 외국 법인은 140억원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IT기업 중에선 1조369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330억원, 매출 1조6160억원의 소니코리아가 60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제조업 중에선 7조5350억원을 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910억원, 5조7890억원을 번 BMW코리아가 660억원을 각각 냈다. 서비스업 중에선 9940억원을 번 한국맥도날드, 2조100억원을 번 나이키코리아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애플코리아처럼 매출원가를 올려 잡는 등 영업이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수익의 대부분(앱마켓 인앱결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제외했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수조원대로 추정된

다. 하지만 2022년 매출로 3449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는 169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한국맥도날드는 매년 순매출의 5%, 국내에서 신규 매장을 열 때마다 4만5000달러를 미국 본사로 로열티로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각 국가와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올린 소득(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 법인에서 거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를 부풀리거나, 로열티를 내는 식으로 본사로 넘기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작아진다. 이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탈세에 가까운 절세’란 지적이 나온다.

어렵사리 법인세를 매기더라도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 행정소송 1494건 중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135건(9%)이었다. 반면에 외국계 기업이 낸 소송 42건 중 패소한 경우는 8건(19%)을 기록했다. 그나마 2021년 패소율(44%)에 비해 낮아졌다. 외국

계 기업은 지난해 1550억원 규모 불복 소송을 내 1010억원(65.5%)을 돌려받았다.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회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뜰이나 ‘세수(국세 수입) 핑크’의 주범인 법인세 징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줄었다. 천하람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아낀 세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외에선 ‘디지털세’ 등 논의 활발

해당 외국계 기업은 법인세 납부에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애플은 한국 법을 깊이 존중하며, 세부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에선 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디지털세(稅)’ 도입 논의가 대표적이다. 디지털세는 IT기업이 이익을 얻은 시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내 국가에서 세금을 물도록 하는 개념의 조세다. 연간 매출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해당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 납부하는 식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11월 5일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해 각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거나 받거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최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두 장관이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18~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제1회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최 외무상의 방러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의 서기는 러시아

# 아침엔 미사일, 밤엔 오물풍선... 북한, 추석 내내 대남도발



벤츠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서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환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보스토티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지 딱 1년이 되는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합의

에 따라 양국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활력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진에 맞게 러시아와의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최고급 벤츠승용차의 조수석에 쇼이구 서기를 태우는 등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전했다.

북한은 18일 오전에 평남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등 비행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난 7월 발사된 북한관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제사회는 KN-23을 북한이 그간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8일 오후엔 대남 오물 풍선을 또 남으로 내려보냈다.

이와관련 오는 10월 퇴임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17일 영국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2022년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이 어떻게 점점 더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그들은 모두 상당한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이구 서기는 방북에 이어 17일엔 예고 없이 이란을 방문했다.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일종의 ‘몸값높이기’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용도로 추정되는 12축(24륜)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8일)한 데 이어 닷새 만인 13일 대규모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했다. HEU 제조시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시킨 배경이자,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싱가포르-하노이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핵심 이유다. **이유정 기자**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Washington 中央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http://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 한국방문의 모던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 고풍격 고국일주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특전**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고풍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 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 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고국 1~6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일출발**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금출발**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일출발**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일출발** \$2149+항공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국 건강검진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p>•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p> <p>•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p> <p>•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p> <p>•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p> <p>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p>	<p>대한항공 한국자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p>	<p>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위공원, 태국투산물</p>	<p>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야만 해양관광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p>	<p>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데미파크,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기동사원, 수상인형극</p>	<p>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륙,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퍼사원, 다낭대성당</p>	<p>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작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경거러, 태로산협곡, 화련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촌, 아류래양 국립공원, 자우편거러</p>	<p>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더스, 헨더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못, 차이나타운, 센트사, 실로스타비</p>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10/1, 11/14, 12/12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 출발: 9/30, 10/07, 10/14, 10/28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심/몽뜨랑블랑 \$950

10/7, 10/14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제여행 완영

2박 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뉴욕 동부 명도 해안 북쪽**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1박 2일 \$399

위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틀고 차례지낸 추석, 내일부터 폭염 주춤

의령 37도 등 추석 곳곳이 폭염경보  
오늘내일 전국 최대 100mm 비 소식  
주말되면 낮 30도 이하로 떨어질듯  
중국=수퍼태풍, 동유럽 폭우 피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역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며 폭염  
에 시달렸다.

18일 기상청 방재기상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추석 당일인 17일 전국 97개 관측 지점 중 89개소(91%)에서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37.2도까지 올라 이날 전국 관측 지점 중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를 웃돈 지점도 29곳에 달했다.

폭염의 원인으로는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강력한 고기압과 13호 태풍 '버빙카'가 지목된다. 버빙카는 15~17일 우리나라에 근접하며 강력한 열기를 불어넣었다.

한국은 폭염을 겪은 대신 9월 태풍 피해는 입지 않았다. 괌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을 태풍들이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하는 길이 형성됐

기 때문이다. 이 고기압은 차가운 공기에 곧 밀려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나타나겠지만 20일에는 31도로 한 차례 떨어지고 이후에는 낮 최고기온이 21~29도로,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밑돌 것이라고 예보했다.

19~20일은 전국에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 비가 지나가고 나면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게 기상청 예상이다. 기상청 관계자

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 공기 자체가 서늘한 가을 공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소멸한 버빙카는 1949년 이래 상하이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다. 중국 CC-TV에 따르면 버빙카는 중심 부근에서 시간당 풍속 151km의 강풍을 일으켜 1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53만4185㎡ 농경지도 침수됐다. 중국 기상 당국이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41만4000명이



중국 상하이를 강타한 태풍 '버빙카'에 건물 외벽이 뜯겨 나간 모습. 아래 사진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폭풍 '보리스'로 물에 잠긴 체코 오스트라바. [X 캡처, 로이터-연합뉴스]

대피하고 항공편 1600편이 결항하며 추석 연휴 귀성객의 발을 묶었다.

중국 기상청은 상하이 앞바다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오키나와를 통

과한 태풍이 상하이 부근에서 세력을 키웠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대기 불안정에 영향을 주면서 '수퍼 태풍'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태풍이 오키나와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길목의 해수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동북아시아 주변 해수 온도 중 가장 뜨거운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18일 괌 부근에서 발생한 14호 태풍 '폴라산'도 버빙카와 매우 비슷한, 오키나와~상하이 경로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 중부와 동부는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17일(현지시간)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폭우 피해 사망자는 루마니아 7명, 폴란드 6명, 오스트리아 5명, 체코 3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여러 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난주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이어진 폭우는 오스트리아·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 중동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이재민과 피해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번 폭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유럽에서 발생한 찬 공기가 지중해와 북해의 높은 수온과 만나 강한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정은혜 기자

## 추석 대란은 없었지만... 한동훈 중재에도 협의체 공회전

(여·야·의·정)

응급실 환자, 작년 대비 20% 줄어  
한동훈, 15개 의사단체 만났지만  
의료계 "정부, 잘못 인정부터" 반박  
정부는 "합리적 대안을" 입장 고수



18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연휴에도  
구체적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2주째  
공회전하면서 여론 내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연휴 기간 의료계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진다. 대화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에 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의사협회 등 15개 의사단체 관계자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고 한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선 "이대로 가면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협의

체 참여에 조건을 걸지 않겠다"고 했다.

협의체 출범에 사활을 건 한 대표는 전공의 설득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두고서 "사법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30%가량은 이미 일선 병원에 취업했고, 전공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뿐 아니라 한 대표가 개별 전공의도 비공개로 만나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불안부터 의료개혁의 방향, 복귀 의사까지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한 번의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규



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얼마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응급 상황에 대해선 "의료진의 헌신으로 응급 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우려와 달리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 수가 지난해 대비 600개 늘고, 응급실 방문 환자 수는

20% 줄면서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복귀 전공의·교수 등의 리스트를 유효하거나 공개 비방한 43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 13일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의료 현장 상황과 관련해선 "추석 때 큰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해도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연휴 이후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두고 오락가락하던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조승래 수석대변인), "국민은 의료공백 공포 속에 연휴 기간 전전긍긍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고 지적했다.

그사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 국민의힘 지지도는 28%로 둘 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여론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창훈·문상혁 기자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플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굿바이 대한극장, 66년 막 내렸다

국내 첫 70mm 스크린 '개봉작 메카' 적자 쌓이며 예정보다 일찍 폐관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내년 개장 충무로 극장시대 역사 뒀다



서울 충무로의 대형극장 대한극장이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1958년 국내 최대 극장으로 개관한지 66년 만이다. 대한극장의 현재 모습(큰 사진)과 1960년대 할리우드 대작 '벤허'를 개봉한 당시 모습(작은 사진).

연합뉴스, 사진 대한극장

서울 충무로 흥행사를 상징했던 간판 영화관 대한극장이 66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국내 최초 70mm 초대형 스크린 시대를 열었던 대한극장은 1962년 할리우드 대작 '벤허'의 전차 액션을 보려는 관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벤허 극장'이란 애칭도 얻었다. 극장은 지난달 말까지 '아듀 대한극장 1958~2024' 타이틀로 고전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상영 이벤트를 진행한 뒤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대한극장 건물은 영국 런던, 미국 뉴욕에서 관객 몰이한 논비벌 이머시브(관객 참여형) 공연 '슬립 노 모어'를 내년에 선보이는 걸 목표로 현재 내부 개조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극장 폐관과 함께 한국 영화 메카로 통했던 충무로 시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게 됐다. 1907년 설립된 우

리나라 최초 상설 영화관 단성사(2008년 폐관), 2015년 CJ CGV에 운영권을 넘긴 파카디리 극장, 2021년 폐관한 서울극장에 이어 단관시절 극장으로서

울 시내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한극장마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1958년 미국 영화사 20세기 폭스의 설계로 개관한 대한극장은 최첨단 설

비로 극장 문화의 획기적 전환기를 이끌었다. 빛의 방해받지 않게 지어진 국내 1호의 창문 없는 영화관이었다. 초대형 스크린에 더해 국제 규격에 맞춘 당대 최다 1900여석 매머드 객석, 웅장한 입체 음향 시설까지 갖췄다.

한 편의 신작 영화를 영화관 한 곳에서만 개봉했던 1990년까지, 대한극장은 할리우드 대작 개봉의 대명사였다. 창립작은 캐리 그랜트, 데보라 카 주연의 '잊지 못할 사랑'(1957)이다. 서울 인구 250만명 중 70만이 관람한 '벤허', '아라비아의 로렌스'(1970년 개봉), '마지막 황제'(1988년 개봉)까지 매년 신화를 이어갔다. 1967년 영화관람료 500원 시대를 연 대작 '클레오파트라'(1963)도 대한극장 개봉작이다. 한국영화 중에선 1958년 꼬마스타 안성기 출연작 '눈물을 비롯해, 1967년 우리나라 최초 만화영화 '홍길동', 1968년 신성일·홍세미 주연 '춘향' 등이 대한극장 히트작이다.

대한극장은 2000년 1년 간 휴관하고 250억원을 투입해 7층, 11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로 재탄생했다. 2018년엔 개관 60주년 기념 '루프탑 상영회'를 열며 간재함을 알렸지만, 2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뒤편을 맞았다. 오후 1시 조조할인, 반값 관람료 등 할인 정책을 폈지만, 운영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9월 말 영업종료라고 해서 예매하려고 보니 아무것도 안 나온다" "청춘의 기억이 있던 곳인데 안타깝다" 등 아쉬움을 토로했다.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 제작자인 원동연 리얼라이즈 픽처스 대표는 SNS에 "집에서 5분 거리였던 대한극장은 영화의 꿈을 키운 곳"이라고 적었다.

전국적으로 단관시절 극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영화관을 문화유산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0년 된 최고령의 인천 애관극장, 광주 광주극장 등도 운영난을 겪은 지 오래다. 한국영상자료원이 2022년 '한국영화 현장 기록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보존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영국·독일 등에서 유서 깊은 영화관을 정부·대기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나원정 기자

## "학교 가는 대신 성착취방 경력 쌓겠다는 중·고교생도 나와"

### 5년째 디지털 성범죄 쫓는 '리셋'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권리로 여기는 가해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들에게 불법 합성물은 그저 일상 속 놀이로 취급될 뿐이다."

지난 5년간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온라인 채팅방 등을 모니터링한 비영리단체 '리셋(ReSET)'은 활동 초기와 비교할 때 달라진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리셋은 2020년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당시 여성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익명의 활동가들은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메신저 플랫폼에서 성착취물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국회에 입법 제안을 제출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 등 해외에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시위에도 나섰다. 지난 9~10일 두 차례에 걸쳐 리셋의 활동가들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리셋이 활동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피해는 더 치명적인 형태로 변했다. 과거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엔 '지역(서울·인천·대구 등)방', '직업(군인·교사·기자 등)방'처럼 지인의 신상을 토대로 한 범죄가 급증했다는



국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유럽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리셋. [사진 리셋]

뜻이다. 특히 10대 등에서 무분별하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리셋의 한 활동가는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성착취방도 있고, 중·고교생들이 '학교 갈 시간에 성착취 채팅방 매니저로 경력을 쌓겠다'며 운영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특별 단속에 나섰다. 텔레그램 등에서 성착취물 제작·공유방은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것이 리셋 측 설명이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프로그램) 채널의 경우, 참여자가 22만명에서 39만명으로 순식간에 늘었다고 한다.

리셋 측은 "지금도 유명 성착취방 운영자가 새로 연 지인 능력 방에 하루 만에 2만명씩 몰린다"며 "가해자들은 '몇 주, 몇 달만 지나면 또 다시 잠잠해질 것'이라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언론에 보도될수록 'OO 언론사 기사에 나온 바로 그 방', '공짜 홍보 감사', '애들아, 형 뉴스 탄다'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성착취방에서는 "뉴스에 나와도 쫓지 말고 지능(지인 능력) 해라. 기사를 낸 기자도 능력해라" 등의 성착취물 제작·유통 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른 메신저 플랫폼과 다크웹 등 브라우저를 거쳐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했다. 리셋의 활동가는 "한국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해외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가해자를 수거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IT 플랫폼의 규제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셋 측은 "현행법은 실제 유통되거나 유통 목적이 입증된 제작 행위만을 처벌해 합성물 소지·시청자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는 위장 수사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원 기자

## "꿈은 진보, 체질은 보수" ... 보혁 넘나든 시대의 조정자

### 삼과 추억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언론인 거쳐 민정당 참여, 4선 의원 YS때 장관... 파업에 공권력 반대

언론인이자 정치인으로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양 진영의 교류에 애쓴 남재희(사진) 전 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6일 전했다. 향년 90세.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 군이 서울대 법학과에 부정 편입학하자,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한국일보를 거쳐 1962~1972년 조선일보 기자와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1972년 서울신문 편집국장, 1977년 서울신문 주필을 지냈다. 관훈클럽 총무를 맡기도 했다.

이후 1979년 민주공화당 후보로 서울 강서구에서 제10대 국회의원이 된 것을 시작으로 13대까지 강서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고인은 1980년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 민정당 정책위의장을 두 번 역임하는 등 전두환 정권의 핵심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두 딸이 운동권 학생이라는 점이 화제를 불

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엔 노동부장관(1993~1994년)을 지냈다. 이후 5년간 호남대 객원교수로 정치 문제를 강의했다.

보수 정권 핵심으로 있으면서도 진보와 교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신을 '체제 내 리버럴'이라고 표현했고, 유족에 따르면 한 시인은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었다/ 꿈은 진보에 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다'고 쓴 적도 있다.

장서가와 독서가로 유명했던 고인은 '일하는 사람들과 정책'(1995), '언론 정치 풍속사-나의 문주(文酒) 40년'(2004), '문제는 리더다:정관용이 묻고 남재희, 김종인, 윤여준, 이혜찬이 답하다'(공저, 2010), '남재희가 만난 통큰 사람들'(2014), '아주 사적인 정치 비망록'(2006), '진보 열전-남재희의 진보 인사 교류록 오십년'(2016), '시대의 조정자: 보수와 혁신의 경계를 가로지른 한 지식인의 기록'(2023), '내가 믿을 안다: 잊혀진 정계와 사회문화의 이면사'(2024) 등 다수의 저서를 냈고, 새마을훈장 근면장과 청초근정훈장을 받았다. 위원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중증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 신제품 세종 후코펫

**주요 성분**

-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Blotach 세종바이오텍**

## 703-256-7671

우리말 바꾸기

‘본뜬’ 수 없는 이유

요즘 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가상 인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연예인 대신 가상 인간을 모델로 뽑아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거나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좇아 만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본뜨다’이다. 그런데 이 ‘본뜨다’를 활용할 때 ‘본뜬’으로 써야 하는지, ‘본뜰’으로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활용형이 ‘본뜬’이 되려면 기본형이 ‘본뜨다’여야 한다. 그러나 ‘본뜨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본뜨다’를 활용한 ‘본뜰’이 맞는 표현이다.

“알파고, 인간 뇌의 신경망 본뜬다” “연구진은 뉴런의 구조적 특성을 본뜬다” 등에서와 같이 ‘본뜨다’를 과거형으로 활용할 때 역시 ‘본뜬다’와 ‘본뒀다’ 둘 중 어느 것을 써야 할지 아리송하다. ‘본뜬다’는 ‘본뜨다’의 활용형이다. ‘본뜨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뜬다’ 또한 틀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뜨다’를 활용하면 ‘본뜰’ ‘본뒀다’ 등이 되므로 과거형으로 쓸 때 ‘본뒀다’고 해야 바르다.

기본형이 ‘본뜨다’인지 ‘본뒀다’인지 헷갈리면 ‘본뜨다’가 “본을 뜨다”에서 온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본’과 ‘뜨다’가 합쳐진 말이 ‘본뜨다’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대선 후보들



진성철  
경제부장

올해 대통령 선거도 4년 전처럼 경제 문제가 유권자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 공약이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1%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의 79%에 비해 2%포인트 높아진 비율이다.

지난 몇 년간 지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심성 경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9월 현재 35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공약은 없고 되레 늘리는 공약만 내놓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경제 공약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CTC) 확대와 팁 면세다.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양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이다. 왜일까? 둘 다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좋은 공약일지 모르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재정 적자 폭만 늘리는 나쁜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공약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CTC를 자녀 나이에 따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2~5세 아동 1명당 3600달러를, 6세에서 16세까지는 3000달러

의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해리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소득 기준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캠프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명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행 2000달러보다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4000달러나 더 많다.

해리스의 CTC 확대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조600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추산이다. 트럼프 안의 경우엔 이보다 더 많은 10년간 3조2000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양 후보 모두 팁 수입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팁 면세도 약속했다. 특히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네바다주의 경우 10명 중 2명이 팁 근로자로 알려졌다. 팁 면세는 주요 유권자 그룹으로 부상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이다. 요식업 종사자 25%가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이다.

CTC 확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제 혜택

이 목적이라면 수혜 대상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조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의 지적이다. 팁 면세 공약도 허점 투성이다. 팁 근로자 3명 중 2명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팁 근로자 3명 중 1명만 팁 면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연방정부 부채 이자만 1조1580억 달러를 지출하게 생겼는데 양당 대선 후보는 이를 축소할 수 있는 공약은커녕 선심성 공약에 필요한 자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내놓은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재정 적자가 5조8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해리스의 공약 역시 향후 10년간 2조24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세인데 오히려 양 후보의 공약은 감세나 세액 공제 내용이 많다.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결이 아니라면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 정책 축소와 정부 지원 삭감 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다른 취약 계층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양 후보 모두 사탕발림식 공약 남발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경제 공약을 내놓아야 할 때다.

마켓나우

투자자에게 대선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스티브 도버  
프랭클린템플턴 연구소장

선거 운동의 핵심인 공약과 슬로건은 당선자의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정치 때문만은 아니다.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종종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정책 방향을 바꾼다. 미국 대선의 승자가 조우할 현실 중 하나는 1조 7000억 달러(2023년 미국 GDP의 6.3%)에 달하는 대규모 연방 재정 적자다.

대선 결과가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는 현재 무엇을 아는가. 첫째, 승자를 예상해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해리스의 출마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리스의 존재 자체가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25년에 어떤 정책이 등장할지는 더 알기 어려워졌다.

둘째, 누가 이기든 전면적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두 경제 이념의 대결장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등장해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온

1980년대 초와 다르다.

후보들이 정책 공약과 경제 이념에 따라 선명하게 구분되던 시대는 지났다. 과거 공화당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당, 민주당은 케인스주의 정당이었다. 유권자들을 그룹별로 겨냥하는 오늘날의 ‘거대적’ 경제 정책은 과거의 거창한 수사를 배제한다.

셋째, 부문별로 살피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화석연료와 제약 부문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바랄 것이다. 트럼프 체제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의약품 가격 책정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가 당

선되면 그가 인센티브를 통한 주택 건설 촉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재생 에너지와 주택에 지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선거와 정치가 장기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미국과 글로벌 주식 시장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워싱턴을 장악했을 때뿐만 아니라 권력을 나누어 가진 시절에도 번성했다. 권력의 독점·분점 규모와 별도로 하락·조정·약세장은 존재했다.

물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처럼 대통령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재정 적자 해소, 채권 수익률 하락, 강력한 성장 등 모두가 기뻐하는 결과를 내는 대통령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024년은 그런 순간이 아닌 것 같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미국 경제 상황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성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급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텍션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For Sale**

**Open House 9/21/2024 (1-4pm)**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3, 2 레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6,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 물,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AVC, 새 핫워러팅크, 새 마루, 새 카펫(지하 방, 플러스, 우드 fireplace) 선크, 페리오, 워크아웃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 ① 프로협상전문가
-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사범대 중퇴했지만 가장 많이 한 일은 가르치는 것

**이문열, 시대를 쓰다(끝)**  
**세종대 교수직 수락한 이유**

『맹자(孟子)』에 “사람의 환란은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人之患在好爲人師)”는 말이 있다. 누구나 선생 노릇을 좋아하는 병통이 있다는 말이다. 나는 사범대를 중간에 그만뒀지만 몇 군데서 교편을 잡아 보았다. 군체대 후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것까지 치면 선생 노릇을 꽤 많이 한 편이다.

작가가 되고 나서도 뭐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곳이 전 장암리에서 부약문원을 열었던 시절에는 5기까지 20여 명을 헤아리는 원생들이 다만 『소학(小學)』 몇 마디라도 내게서 배워가곤 했다. 어찌 생각하면 직업으로서 가장 많이 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옛 제자들 찾아와, 나쁜 선생 아니었던 듯 젊어서야 내게 교사관(教師觀)이랄 게 있었겠나. 내가 좋은 선생이었는데, 나쁜 선생이었는데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옛날 제자들이 찾아왔던 것을 보면 아주 나쁜 선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90년대 중반 세종대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도 선생 노릇 좋아하는 병통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그보다는 작가로서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여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당시 나는 지천명이 멀지 않은 나이였다. 한 번쯤 소설 창작에 대한 이론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결국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가 배워야 한다. 그게 교수직을 수락한 주된 이유였다.

94년 7월 초순 교수직 제안을 수락한 다음 첫 수업일이 다가오자 국민학교 입학 전날 밤처럼 설렜다. 참으로 순진한 영혼들을 만나는 일 아닌가. 그런 만남도 반복되면 지겨워질 수 있겠는데, 학기가 바뀌어 사람이 새로워지면 나도 언제까지나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선생 노릇은 갈수록 부담스러웠다. 교수 첫해에는 그래도 관寬했다. 95년 보다 전문적인 내용의 ‘국어의 미론’을 가르치게 되자 막막했다. 언어의 수행(修行) 능력을 따지는 화행론(話行論)까지 건드려야 했는데 몇 시간 수업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제대로 가르치려면 몇 달은 공부해야 할 것 같았다.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대학교수 경력이 나중에 내게 어떤 보증이 된다거나 결국 문학에 도움이 되는 잡학을 늘린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어떤 일든 욕심부리다 보면 몸은 그만큼 고달롭고 질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이 되물게 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세종대에 가기 전 나는 미국 유학을 갈 생각이었다. 소모적인 글쓰기에 지쳐 재충전이 절실했다. 2, 3년간 작품을 쓰지 않을 생각으로 미국에서 다닐 학과와 지낼 곳을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몇 년씩 나가 있다는 게 쉽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차에 교수직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다.

가깝게 지내던 평론가 유종호 선생과 이청준 선배에게 물어보니 “경험 삼아 한번 해 보라”는 의견들이었다. 영문학자인 유종호 선생은 “영어에 ‘Teaching is Learning(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단 학교에 너무 오래 있지는 말라”고 하셨다.

이청준 선배는 연약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나와는 많이 달랐는데 이상하게 죽이 잘 맞았다. 1987년 중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내가 이상문학상을 받았을 때 심사평에서 “현실

질서의 옳고 그름뿐 아니라 거기 대응해 나가는 정·부정 간의 태도나 신념 체계 일체를 재검증과 반성의 소설 행위 범주 안에 포괄하고 있다”는 뜻에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내 소설 세계를 평가하기도 했다. 알려진 정도로나 세계관으로나 1990년대 나를 대신해 우파는 객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소설 이외의 일을 일절 거부했다. 그는 1980년대 중반에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2년간 지낸 적이 있어 내 선택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8월 초순 국문학과 일부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 강의의 능력을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개 강의를 요구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 뒤에는 아마 내 교수직 임용을 못마땅해하는 다른 교수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미국 박사학위가 있어도 일기 어려운 게 교수 자리인데, 학사 졸업장도 없는 이문열이 교수로 온다고 하니 일부는 불만스러워 하고, 일부는 기뻐하지 않았을까.

**첫 수업날 “학생보다 기자가 많네”**

결국 내 교수 임용은 그해 연말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인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대학교원 자격에는 미달하지만

1994년 세종대 국문과 교수로 임용된 이문열씨가 8월 29일 첫 강의를 하는 모습. 최고의 인기작가 대학 교수가 된 데다 대학 중퇴라는 자격 시비까지 더해져 화제를 모았다. [중앙포토]

일부 학생, 임용 문제제기 했지만 교육부, 창작능력 인정해 허용 ‘현대소설론’ 등 꼬박 3년 강의 ‘세계명작산책’ 출간에도 도움

뛰어난 창작 능력과 강의 능력을 고려해 세종대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확정됐다. 그때까지는 자격 없이 강의한 셈이었다.

첫 수업은 8월 29일 국문과 3학년생들의 전공 필수인 ‘현대소설론’이었다. 자격시비까지 있었던 터라 취재진이 적지 않았다. 한 여성잡지에 “학생보다 기자가 많아 보여 가르치는 실감이 안 납니다”는 내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가 날 정도였다.

꼬박 3년을 채우고 1997년 1학기를 끝으로 세종대를 그만둔 것은 역시 창작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1979년에 등단했으니 20년 가까이 써왔는데 따져 보니 앞으로 20년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당시 내 작품 목록은 적었으나, 양적으론 “겨우 이 정도를 쓰고서 게으름을 떨었나” 하는 각성이 절로 드는 것이었다. 200자 원고지로 4만장 가량이었는데, 러시아의 거장 도스토옙스키는 태작 아닌 명작만으로도 그 분량을 훌쩍 넘겼다. 세종대를 그만두고 서울 생활도 정리한 다음 이천으로 내려왔던 이유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당시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계셨던 최인훈 선생에게 세종대로 옮겨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선생은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더니 곧 “20년의 편안함이 좋다”며 서울예대에 눌러앉았다. 결국 거기서 정년퇴직했다.

세종대 교수 노릇은 1996년 10월로 구성된 ‘이문열 세계명작산책’을 엮어 출간하는데 도움이 됐다. ‘현대문학특강’이라는 내 강의를 듣는 학



2020년 출간된 ‘이문열의 세계명작산책’ 개정판 1권 『사랑의 여러 빛깔』. 개정판은 일부 단편을 교체하고 번역도 새로 했다. 개정판은 전체 10권 가운데 1권, 2권, 7권이 나와 있다. 동인문학상 심사위원 모임. 2000년대 사진으로 추정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소설가 박완서씨, 문학평론가 유종호씨, 소설가 이청준씨, 문학평론가 정과리씨, 소설가 김주영씨, 문학평론가 김화영씨, 이문열씨. [사진 이재유]

생들에게 내가 인상 깊게 읽었던 중·단편소설 리스트를 주고 그 안에서 한 편씩을 읽은 다음 독후감을 써오게 하는 과정을 거쳐 수록 작품을 선정했다.

나는 세계문학으로 문학을 접했다. 처음 읽은 소설책이 국민학교 2학년 때 『걸리버 여행기』였다. 5학년 때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중학생 나이 때 『폭풍의 언덕』을 거쳐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다.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대학진학 이후였다. 황순원·이호철·최인훈의 작품을 탐독했다.

작가가 되고 보니 일반 독자나 작가 지망생에게 전범(典範)으로 권할 만한 한국 단편소설은 시대나 주제별로 잘 정리돼 있었다. 세계문학은 그렇지 못했다. 살림출판사의 제안으로 1권에 열 편씩, 100편의 중·단편을 모은 세계명작산책을 엮은 것은 우선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세계명작산책’ 동료 작가 질타 위한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문학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 동료 작가들을 질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불과 몇 권 안 읽고서 그걸 우려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것저것 잡다하게 읽었지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도 있었다.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편의 감동은 장편과 다수 수밖에 없다. 잘 써진 장편의 울림이나 감동은 대단해서 읽고 난 다음 2-3일간 정신이 멍한 경우도 있다. 그에 비해 빼어난 단편은 비수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감흥을 준다. 이 정도의 추억과 단어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을 수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준 작품이 적지 않았다. 단편의 첫 키스 같은 느낌으로 기억되는 작품들이 세계명작산책 안에 적지 않게 들어 있다. 대개 내 절실한 체험과 연결된 작품들이다.

명작산책 1권 『사랑의 여러 빛깔』에 수록된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는 기괴한 전율을 느꼈던 작품이다. 애인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도록 독살하고는 썩어가는 그 시체 앞에서 50년을 누워 지낸 소름 끼치는 사랑이구나. 1980년대 후반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 전역을 돌 때 포크너가 생애 대부분을 살았던 미시시피주 옥스퍼드를 일부러 찾기도 했다.

방랑소설이자 귀향소설, 성장소설인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크놀프’는 방황으로 점철된 10대 후반 내 정신적인 동반자였다. 프랑스의 모파상도 내가 무척 좋아하는 작가다. ‘비켓팅어리’ 같은 작품은 지금 읽어도 감흥이 새롭다.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산삼

##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 시 설

## 국정 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어린이 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앞서 군과 경찰·소방 근무 현장도 연이어 방문했다.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는 건 대통령의 마땅한 역할이다. 그러나 매서웠던 추석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형국이다.

연휴 직전(13일) 공개된 한국갤럽(전화면접)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 결과(27%, ARS)도 최저치였다. 전례 없는 폭

염과 끝 모를 불황,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등 팍팍한 민생 현안부터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과

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뭐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였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추석 차례상 기본 니물인 시금치 한 봉지가 1만원까지 치솟은 충격적인 물가와 의사 공백 사태로 야파도 제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그 자리를 채웠다. 두루 평안했어야 할 명절이 좌불안석의 연속이었다.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비합리적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나 여론은 치밀한 논리와 설득 노력 대신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됐고, 의료 개혁이 의·정 갈등 장기화로 번지면서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1위에서 오히려 걸림돌로 뒤바뀌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도 당정이 “유예” “불가”로 엇박자다.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린 순 없지만, 유연한 접근으로 해법을 찾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오만·불통·독선적 이미지에 대한 반감이 의·정 갈등에 집약돼 표출되면서 민심은 더 싸늘해졌다. 이런 판국에 연휴 직전 핵심 참모가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칭송했다는 보도와, 명품백 사건 등에 사과 등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던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질렀다. ‘김 여사 문제’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 일곱 번째(3%, 이하 한국갤럽)로 꼽힌 건 그 심각성을 방증한다.

대통령의 ‘지지율 20%’는 국민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자, 국정 운영 동력의 실질적 마지노선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체념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굳건한 지지층인 70대 이상(긍정 37%·부정 48%), 보수층(38~53), 대구·경북(35~57) 민심도 등을 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최순실 스캔들’로 17%(2016년 10월)를 찍으며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에 20%가 붕괴(17%, 2012년 8월)하면서 레임덕을 피해 가지 못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이다.

### 물가 등 경제 상황, 의·정 갈등에 끝없는 추락 국정 동력 마지노선 붕괴 않도록 전면 쇄신을

##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서 번 만큼은 세금 내야 맞다

2022년 국내에서 7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애플은 지난해 한국에 법인세 502억원을 냈다. 매출의 0.7%다. 같은 기간 한국 매출 1조6000억원의 소니는 67억원(0.4%)을 냈다. 국내에서 7조5000억원 매출의 벤츠코리아는 911억원(1.2%), 5조7000억원의 BMW는 662억원(1.1%)의 세금을 냈다. 9900억원 매출의 한국맥도날드와 2조원 매출의 나이키코리아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금을 낸 기업 가운데 매출 5조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이 내국 법인은 2639억원이지만 외국 법인은 141억원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절세 신공’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합리적 절세를 넘어 적극적 조세회피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절세 내지 적극적 조세회피는 어제오늘의 일도,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가격인 매출원가를 올려 잡거나 분사 로열티를 과다 계상하고 본사에 고배당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줄여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초국가적 조세포탈 방지 협약인 글로벌 최저한세를 만든 것도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절세를 막기 위해서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15%의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모기업이 본

국에서 차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 한국은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국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조세 경쟁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당초 의도대로 굴러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허점을 이용해 세액공제나 현금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경제를 살리는 외국인 투자의 장점은 살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우리의 조세 주권도 확립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다.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 제출 거부와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한 최근 국세청 결정은 늦었지만 옳다. 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외국 기업의 연락 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제출률은 45%에 불과했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지 결정에는 낮은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제 전부가 아니다. 시장의 크기, 입지 비용, 좋은 협력기업, 합리적인 규제 등도 영향을 미친다. 주 52시간제 보완 등 노동개혁과 입지 규제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모의 아침, 권력의 비극

### 이상렬의 시시각각

#### 時 視 各 角



“백악관 회의는 아침 경쟁장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R 맥매스터의 회고다(『우리 자신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백악관에서 나의 임무 수행』). 맥매스터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의 중심을 잡는 균형추 역할을 하며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인물 중 하나다. 충동적이고 예측불허인 트럼프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마다치 않다가 경질됐다. 아침뿐 특선은 트럼프 정부의 비극이었다. 맥매스터는 “대통령님의 직관은 항상 옳아요” 같은 아침이 난무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은 결국 2020년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

아침이 고언을 밀어내면 정권은 나라로 떨어진다. 동서고금에 술한 사례가 있다. 윤석열 정부도 심상찮은 징후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37년 만의 대통령 불참이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원 조희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심기가 편치 않을까 봐 국회 개원식 참석을 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불참했다.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뤄놓고선 이달 초 친윤 성향의 일부 최고위원 등과는 만찬을 했다. 모아놓고 보면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와도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편으론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고립되는 풍경으로 비친다. 대통령이 ‘내 편’만 만나게 하고, 거북한 얘기를 듣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보좌인가. 심기경호가 참모들의 역할이어서 안 된다.

경제 문제에선 정부 내에 자화자찬이 넘쳐난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정보

리평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는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외신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 그게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 대통령은 ‘30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 ‘실업률 역대 최저’ 등 고용 호조를 자랑했다. 그러나 얼마 뒤 8월 취업자의 54.6%가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역대 최고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는’ 이도 256만여 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이런 ‘지표 착시’가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이 브리핑한 경제 상황은 참모들의 보고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다. 기분 좋은 지표 위주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추석 연휴 전 여론조사에서 윤 대

### 윤 대통령 국회 개원식에 불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참모들 심기경호 대신 고언해야

링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20%, 리얼미터 27%). 아직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지지율만 놓고 보면 레임덕의 전조다. 이런 지지율로는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어렵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70%) 이후 1, 2위인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는 새로 불거진 게 아니다. 정부의 상황 인식과 처방이 민심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통합·협치 부족(3%) 등 ‘불통’에 대한 불만도 높다. 국회 개원식 불참 등 대통령의 나홀로 행보는 그런 이미지만 강화했을 것이다. 용산의 참모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 고쳐야 할 대목이 있다. 트럼프의 백악관이 아침 경쟁장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그걸 즐겼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참모를 선택하고, 그 참모가 어떻게 일하게 할지는 결국 대통령에게 달렸다.

수석는설위원

###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a href="http://jib.joongang.co.kr">http://jib.joongang.co.kr</a>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a href="http://ad.joongang.co.kr">http://ad.joongang.co.kr</a>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안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a href="mailto:sarangbang@joongang.co.kr">sarangbang@joongang.co.kr</a>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인쇄: (주) 중앙일보	저작권: (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인쇄: (주) 중앙일보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中国의 CCTV,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Hair **Z**one

##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Seniors (Up to 65)  
Kids (Under 15)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60-Minute Body Massage**  
- Relaxation Full Body  
- Swedish with Free Essential Oil  
- Therapeutic Deep Tissue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0PM - 3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Hair **Z**one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SEP. 19<sup>TH</sup> - SEP. 26<sup>TH</sup>, 2024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LB

~~REG. \$19.99~~

**10 UP SIZE**  
**BIG SIZE**

**\$11.99**

SEP. 19<sup>TH</sup> - OCT. 3<sup>RD</sup>, 2024



**6 EA MORE!!**



자연으로부터 얻는 건강

**ilseongjeong**

**6 EA MORE!!**

**40% OFF**

**Pear Juice 100/ Balloon Flower Drink**

**일송정 배즙100/도라지진액**

~~REG. \$49.99~~

70-90 mL  
 X 1 BOX(30 EA)  
**+ 6 EA MORE!!**

**\$2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September 19,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관리 편한 정원·야외주방 인기

**집값 올리는 뒷마당 특징은** 최근 몇 년간 뒷마당은 바이어들의 구입 결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질로(Zillow)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뒷마당이 있는 주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TV나 화덕 등이 설치된 뒷마당이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집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셀러들을 위해 최근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뒷마당 특징을 알아봤다.

TV, 샤워시설 갖추면 집값 2~3% 올라  
피자화덕, 그늘막, 패티오도 투자할 만

▶**관리 편한 정원**  
최근 바이어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뒷마당보다는 관리가 쉽고 거주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뒷마당을 선호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최근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은 외부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는 뒷마당을 원한다. 그래서 질로 보고서에 따르면 울타리가 쳐진 주택이 울타리가 없는 주택보다 더 빨리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바이어들은 넓은 화단이나 넓은 정원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원 관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 거주처럼 가뭄이 빈번한 지역에선 물 사용이 제한돼 있다보니 천연 잔디 대신 관리가 필요 없는 인조 잔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공간**  
최근 바이어들은 뒷마당을 가족 또는 손님 초대 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사용하길 원한다. 그러다 보니 뒷마당용 야외 TV는 바이어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됐다. 질로 보고서에 따르면 야외 TV가 설치된 주택은 예상

가보다 3.1% 더 높은 가격에 팔렸는데 이는 전국 주택 평균가 보다 1만749달러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된 것이다. 남가주 소재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에게 파고라(Perogola), 데크(Deck), 화덕(Fire Pit), 포치(Porch), 그늘막(Shade Sail) 등도 인기. 여름이 긴 주에선 그늘을 드리워주는 부대시설은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이런 시설을 갖춘 주택이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 더 빠르고 비싸게 판매된다. 이외에도 패티오에 야외 가구를 배치하면 손님 초대 및 다양한 모임에 활용할 수 있어 바이어들이 선호한다.

▶**야외 주방**  
야외 주방 역시 최근 인기 부대시설 중 하나다. 야외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목 장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외 주방은 그릴, 쿨러, 카운터, 싱크대를 갖춘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바, 카운터탑, 피자 오븐, 와인 냉장고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럭셔리 주방까지 다양하다. 또 피자 오븐이나 피자 화덕도 인기 부대 시설 중 하나인데 이는



남가주처럼 여름이 길고 무더운 지역에서 예비 바이어들은 그늘막 시설을 갖춘 뒷마당을 선호한다. (unsplash.com 제공)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바이어에게 매력적인 시설이다.  
질로 보고서에 따르면 야외 주방과 피자 오븐을 갖춘 주택은 비슷한 가격대의 리스팅 보다 각각 1.7%와 1.9%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 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야외 주방은 판매 시 투자 비용을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용도 공간**  
뒷마당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이어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할 수 있는 웰빙 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다용도 공간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바이어들에게 인기다.

▶**돈되는 개조**

지난해 NAR 리모델링 보고서에 따르면 뒷마당 개조 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항목은 조정 업그레이드와 야외 주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비용 회수율 100%를 기록했다. 특히 야외 주방은 최근 몇 년간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은 개조 항목으로 집에서 요리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새 패티오 설치의 회수율이 95%, 목재 데크 설치 89%를 기록했다. 반면 조경 조명은 59%, 수영장은 56%의 회수율을 기록해 바이어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면에서도 뒷마당 업그레이드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질로의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야외 TV, 야외 샤워시설, 뒷마당 별채(she sheds)를 갖춘 주택이 이런 시설이 없는 주택에 비해 2~3% 더 비싸게 판매됐다.  
이후엔 객원기자  
▶ 3면 '뒷마당'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인공지능(AI) 열풍이 투자 시장을 달군 상반기가 지났다. AI 동심원의 중심인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전력 인프라 등 동심원의 외곽까지 과열된 투자 열기에 투자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3인의 투자 전문가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들은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 본부장, 목대균 KCG자산운용 운용총괄대표(CIO), 신영덕 KB증권 WM투자전략부 이사(가나다 순)다. 투자 금액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1000만원, 예금 이자로는 성에 안 차지만, 공격적인 투자는 꺼려지는 1억원, 금융투자종합소득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10억원 등이다.



# 어디 투자할래? AI 뺨친 뜻밖의 한국 주식



## 지금 1000만원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K뷰티=K뷰티, K푸드 등 K컬처가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유럽 화장품 대비 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이다. K팝의 글로벌 유행 이후 한국 아이돌과 연예인이 쓰고 바르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과거 경험상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은 소비재 주식은 2~3년 정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가는 한국 화장품의 트렌드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한다.

◆중국 고배당주=중국 증시는 부정적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이다.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도 저평가된 상황으로 위험 대비 수익 관점에서 매력적인 자산이다. 하반기 재정집행 가속화 등이 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국9조'가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할 것이다. 배당주 외에도 글로벌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국의 AI 관련주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에 계속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AI와 밸류업=2분기와 같이 AI 분야와 국내 밸류업(기업가치 개선) 수혜주를 추천한다. AI 산업은 지난해 20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8000억 달러로 연평균 37%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투자 비중을 확보하는 게 좋다. AI 생태계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관련 기업의 실적 대비 멀티플(밸류에이션)도 낮다. AI혁신 테마 중심인 미국 성장주 또는 국내 반도체 관련 ETF와 펀드를 추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달 발표된 정부의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세계개편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배당 등 주주환원 증가분의 세계개편을 고려할 때 은행주를 비롯한 배당성장 또는 고배당주관련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금 1억원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60/40 포트폴리오=미국 대선이 있는 하반기는 미국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유동성 장세를 예상한다. 증시 변동성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커질 수 있는 만큼 방어적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채권은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 주식 대비 변동성도 낮다. 상반기보다 주식투자 매력도는 낮아진 반면,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높아졌다.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주식은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여전히 선호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가격)을 고려하면 미국 내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신흥국으로 투자 지역 다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반도체, 산업재(기계·전력), 전기차, 제약 등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주식 70%, 단기채 30%=2분기 투자전략 때보다 주식 투자 비중은 10% 늘린 반면, 채권 비중은 10% 줄였다. 2분기부터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탓에 채권금리가 빠르게 반락(反落)하며, 장기 채권에 대한 상대적 투자매력이 감소했다. 주식 70%는 AI 45%, 전력·원자력 5%, 국내 밸류업 10%, 인도 주식 10%로 채울 것을 제안한다. AI산업 성장으로 초대형 데이터센터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센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력 인프라 및 원자력 관련 투자 수요가 기대된다. 채권은 단기적으로 장기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데다 금투세와 미국 대선 등 주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기채권형 투자상품을 선호한다.

◆AI 분야=AI 혁신은 인터넷, 스마트폰, 전기차 모멘트와 비견될 만한 엄청난 트렌드의 시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이 미래 성장의 사활을 AI에 걸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정적인 투자법이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모멘텀(주가 상승 동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직접 운용 중인 ETF의 경우 AI 자율주행 투자 모멘텀이 왔다고 판단해 테슬라의 비중을 늘린 상황이다.



## 지금 10억원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우주, 연내 만기 저쿠폰채=투자금 1억원과 마찬가지로 전 분기 투자전략보다 주식 투자 비중을 10% 늘렸다. 주식은 1억원 포트폴리오와 비교해 장기 성장 테마인 우주항공 분야를 추가했다. 채권은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표면금리가 낮은 저쿠폰채권을 추천한다. 우주 분야는 국가주도 산업에서 민간주도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 성장 테마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내 일부 비중(5%)만 추천한다. 채권은 금투세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고액자산가들은 절세 관점에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저쿠폰채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 개인투자자는 매매(만기) 상환 차이가 비교된다.

◆고령화 테마=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트렌드는 고령화다. 경제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경제력 있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요즘 고령 인구는 스스로 건강과 미용에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비만과 미용이다. 향후 차세대 분야도 비만 시장만큼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4% 대 중반에서 고점을 형성하며 하반기 또는 내년 금리인하 기대가 생기는 상황인 만큼 글로벌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한국 장기국채, 신종자본증권=지정학적 리스크 등 물가 상승 위험은 존재하지만,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연합·스위스·스웨덴·캐나다 등은 이미 기준금리를 내렸다. 미국과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채권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선반영한 수준이지만, 27년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현 금리는 매력적 수준이다. 표면금리가 낮아 세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자본 이익도 얻을 수 있는 2019~2020년에 발행된 10년 만기 국고채(현재 시장금리 3.16~3.21%, 7월 5일 기준)를 추천한다. 해당 채권을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장기채권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이자 수익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신종자본증권을 추천한다. 발행사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금리는 3% 후반에서 6% 중반까지 다양하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b>\$1,250,000</b>	<b>\$750,000</b>	<b>\$699,000</b>	<b>\$569,000</b>
**방4/ 화장3.5/ 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곳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 2.55/ 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방4/ 화장3.5/2 Assigned. 세자봉.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 압구정 재건축 42억 드는데 분양가는 28억 ... 분상제의 모순

(분양가상한제)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부동산전문기자



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도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마지막 퍼즐이 된 한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분상제를 제외했다. 퍼즐을 풀 뻔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상제는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실제로 들어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이다.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이외의 민간택지(주로 도심 재건축지)의 경우 2007년 도입된 뒤 유명무실해졌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전 8·2(2017년), 9·13(2018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8·2, 9·13대책의 주요 규제가 대부분 풀렸다. 정부는 이번 8·8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상제와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은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합원이 분양보다 14억 더 들기도  
분상제는 요즘 곳곳에서 파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선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의 가격 역전을 낳아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립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밀그램(정비계획)을 보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조합원 몫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는 분상제를 적용받아 3.3㎡(공급면적)당 8000만원이다. 전용 84㎡(35평형)가 28억2000만원이다. 전용 108㎡ 조합원이 전용 84㎡를 배정받으려면 40억5000만원으로 평가된 기존 집을 내놓고 2억원을 추가분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 재건축 비용이 총 42억5000만원으로, 분양받는 것보다 14억원 이상 더 드는 셈이다.



하반기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재건축 아파트. 이미 2021년말 착공했고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사진 삼성물산]

## 분상제로 조합원들 부담 증가 사업성 악화로 분양약 접기도 인기 지역선 과잉수요 부작용 고가 아파트는 '능력자'만 혜택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차의 경우, 전용 92㎡를 소유한 조합원이 전용 84㎡를 배정받으려면 시세 28억7000만원의 기존 집을 내놓고도 추가분담금 4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총 32억8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하지만 전용 84㎡ 일반분양분 분양가는 분상제 적용을 받아 26억원에 불과(?)하다.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받는 것보다 싸게 새집을 갖기 위해 재건축을 하는데, 일반분양자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합이 사업성을 높이려면 늘리는 게 유리한 일반분양을 반대로 줄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은 새로 짓는 주택에서 가장 먼저 조합원 몫을 제외하고 예상 밖 조합원 등장에 대비한 여분(보류지)을 남겨놓은 뒤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한다. 보류지는 조합원이 나타나 않으면 일반에 분양한다. 분상제 이전에는 소형 주택 위주로 최소한만 남겨뒀다. 지금은 분상제와

공개청약을 피할 수 있는 29가구까지 최대한 늘리고, 조합원이 가장 선호하던 펜트하우스(꼭대기층 고급주택)도 남겨둔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잠원동 신반포4지구 등의 보류지가 29가구이다. 조만간 분양을 앞둔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은 펜트하우스 4가구를 모두 보류지로 남길 예정이다. 보류지를 시세대로 팔면 일반분양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신반포3차·경남 보류지 매각 금액이 일반분양가보다 700억원 정도 더 비쌌다.

## 600억 계약금 손해 보고 사업 포기

공공택지 분상제도 뼈격대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한 5개 민간 아파트가 올해 분청약을 앞두고 계약금 손해를 감수하며 분양을 중도에 접었다. 업체들은 공급받은 택지를 반환했고 계약금 60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는 "분양성과 상관없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 분상제 건축비로는 도저히 사업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공공분양도 적자를 낼 수 있다. 현 정부의 새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분양가 기준인 주변 시세의 70~80% 이하를 맞추려면 분상제 가격도 제대

로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주변 시세의 70% 이하인 '이익공유형' 뉴홈은 분상제로 산정한 가격의 8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분상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했을까. 2019년 도심 분상제 확대 이후 집값은 더욱 뛰었다. 분양물량이 워낙 적어 분상제의 주택 수요 분산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강남3구에 일반분양된 민간택지 분상제 물량이 1000가구도 안 된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3만7000건이다.

분상제는 오히려 과잉수요를 낳았다. 분상제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저렴해 '로또'로 불리며 청약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웹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가 평균 527.3대 1, 경기도 성남시 금토지구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가 1110.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분양제 청약자 상당수가 해당 주택에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한 가수요"라며 "분상제가 되레 강남 등 인기 지역 거품 수요를 만든다"고 말했다.

## '능력자'여야 강남 로또 분양받아

그렇더라도 분상제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공공택지는 분상제 물량이 꾸준한 데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그나마 중산층 이하 가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 분양가가 20억원 정도에 달하는 강남 등의 민간택지 분상제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금부자, 고가 임대주택 세입자, 고가주택 소유자, 연소득이 1억원이 훨씬 넘는 고소득자, 아니면 금수저 등의 '능력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에 발목 잡혀 정책적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 분상제 분양가 현실화가 시급하고 로또의 불공정한 독식도 내버려둬선 안 된다.

안장원 부동산전문기자

## 청약돌풍 일으키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만, 경기도는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 가능

단지명	분양 시기	분양가 (3.3㎡당 만원)	시세 (3.3㎡당 만원)	청약 경쟁률
과천시 과천시신정타운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	6월	3336만	4500만	228.5대 1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	7월	2031만	4000만	627대 1
성남시 금토지구 중흥S클래스	7월	2568만	4400만	1110.3대 1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웹타스	7월	6763만	1억2000만	527.3대 1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8월	6481만	8000만	403대 1

자료: 업계 종합

## ▶ 1번 '뒷마당'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을 위한 뒷마당 개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적 특성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영장은

투자수익률(ROI)이 그리 좋지 않지만 애리조나, 라스베이거스, 남가주 등 더운 사막 기후에서는 인기 있는 항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스iting 가격대 역시 비용 회수율에 영향을 미친다. 고급 주택 매매 시 빌트인 키친이나 고급 수영장은

환영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저렴한 주택에선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뒷마당 특징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같은 지역에 있는 경쟁

주택을 살펴보는 것. 만약 해당 지역 리스팅을 살펴본 결과 데크나 화덕이 있는 주택이 빠르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면 이는 뒷마당 업그레이드 시 적극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그 외 30여명 더 있음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 주택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4,200) 렌트 고상 실 투자자
	8003 Fallstaff Rd., McLean	RENTED	UVA 교수로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 음
	825 N Wakefield Dr., Arlington, VA	\$2,700	주재원 3년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2,800	One Park Crest 콘도
★ 사업제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 집값 떨어져도 인상... '억지 공시가' 사라진다

## 공시가 현실화' 폐지, 왜

문 정부 "시세의 90%까지" 로드맵 시장 고려 안해 보유세 2~3배 꺾충  
윤 정부 "시장 변동률만 반영해 산정" 올해 집값 댄 서울 등 보유세 늘 듯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계획'을 폐지하고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수도권 지역은 내년도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구체적 이행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방안은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이 '보유세 폭탄'을 불렀던 만큼 종전 산정체계로 되돌리면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행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

했다. 부동산 자산가격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1~22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갔고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0년간 연평균 4.6%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2021~22년에는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는 2019년 약 5조원에서 22년 6조7000억원, 종부세도 같은 기간 1조원에서 약 4조원까지 불어났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9년 336만원이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2년 691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

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2020년 3058만원에서 2021년 8703만원으로 치솟았다. 더욱이 22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르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했지만,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급락하면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3~24년도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기준 평균 69%)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윤 정부 들어 사실상 현실화 계획 폐지 수준을 밟은 셈이다. 정부는 향후 공시가격

도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예컨대 내 집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공시가격에 지난 1년 간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 대체로 예상해볼 수 있다.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상향과 함께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95%까지 인상해 보유세 부담이 배가 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춰 보유세 부담 자체는 크게 줄었다.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법 개정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백민정·김원 기자

## 김봉렬의 공간과 공간

### 한옥 같은 사옥

경복궁 서쪽 건너편은 영조가 왕자 시절 살았던 창의궁 터다. 일제기에 많은 필지로 나누어 주택가가 되었다가 지금은 작은 갤러리와 카페 등이 밀집해 있다. 그 가운데 한 아담한 건물물이 아름답기 통의동 사옥이다.

아름지기 재단은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현대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설립한 시민문화단체다. 2013년 사옥을 마련할 때 재단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한옥을 일부 포함하는 조건을 걸었다. 건축가 김종규는 사옥 전체를 한옥 개념으로 풀기 위해 한옥 전문가인 김봉렬과 협업하여 설계를 진행했다.



핵심 공간은 건물로 에워싼 2층 '마당'이다. 한쪽은 -자형 한옥이, 맞은편은 목재 덧문의 회의실이 자리한다. 길 쪽 목재 통창은 닫으면 무대 벽이 되고 열면 건너편 경복궁의 풍경이 나타난다. 바깥 풍경을 안으로 끌어오는 전통적 경관법 '차경(借景)'이다. 반대편에는 전통 양식의 연지 정원을 만들었다. 2층 마당은 앞뒤에 옥외계단이 있어 1층을 거치지 않고 앞뒤 길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순환

형 공간이다. 사옥 1층은 콘크리트조로 2층 마당의 기단과 같다. 2층부의 마감은 목재이고 높리와 모양까지 한옥에 맞췄다. 얼핏 하늘 같아 보이는 3층의 반투명 유리 벽은 한옥의 지붕과 어울린다.

콘크리트-목재-유리로 적층한 3개 층은 기단-벽체-지붕으로 3분구성 한옥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한옥 건물 역시 최신 기술로 단점을 보완한 현대 한옥이다. 한식 시스템 창호를 개발해 보온과 보안 문제를 해결했고, 내부에 석재 온돌 바닥을 설치해 신발 신

는 공간을 만들었다.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여전히 다양한 해법들을 요구하고 있다. 아름답기 사옥은 전통과 현대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시도였고 이른바 '한국적 공간'의 적절한 답을 제시했다. 현재 이곳에서 열리는 전시회 '방, 스스로 그려한'은 한국적 인테리어 스타일과 실내공간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 올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액 45조... 작년 연간 총액 넘었다

올 3.8만건 거래...작년 연간의 112%  
대출 규제로 8월 들어 거래량 꺾여  
공급부족 등에 집값 잡힐지 미지수  
"인기지역은 현금 부자 매수세 예상"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액이 4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36조1555억원)을 올해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8247건, 거래총액은 44조9045억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거래량은 112%(3만4067건), 거래총액은 124%(36조1555억원)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2000건대에 머물던 거래량은 3~5월 4000건대에서 6월 7000건대로 훌쩍 뛰 뒤 7월에는 8500여 건이 거래됐다. 종전 최고 거래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신고가 비율도 4월 10%를 웃돈 뒤 8월에는 12.6%로 높아졌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달 7~8월 신고가 비중이 32~34%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아파트 매매 계약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던 셈이다. 일례로 지난해 준공된 반포동 래미안



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지난 7월 55억원에 거래되며 '국민평형' 기준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2009년 준공된 반포 자이 84㎡는 지난달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송파구에선 잠실동 리센츠 84㎡가 지난달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고점(2022년 1월 셋째 주)의 93%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서초·강남·송파·성동구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고, 용산구 역시 전고점의 99% 수준에 다다랐다. 전문가들은 ▶1년 넘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등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불장'은 주변 경기, 인천까지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역시 6월을 기점으로 거래량과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은 1~8월 아파트 거래량이 14만1911건으로 작년(15만6952건)의 90% 수준에 이르렀고, 거래총액은 96조8442억원으로 작년 거래총액(93조3531억원)을 넘어섰다.

직방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더불어 시중은행이 일제히 대출 축소 나서 구매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남권 등 기존 인기 지역은 대출이 막히더라도 현금 부자 위주로 아파트 매매 수요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숫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 제임스 박 부동산

<p><b>FAIRFAX TOWN HOME</b> \$705,000</p> <p>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2/ 차고1</p>	<p><b>CENTREVILLE TOWN HOME</b> \$560,000</p> <p>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5/ 차고 1</p>	<p><b>FAIRFAX TOWN HOME</b> \$690,000</p> <p>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5/차고1 OAKTON HS</p>
<p><b>SPRINGFIELD SHINGL HOME</b> FORECLOSURE \$680,000</p> <p>GOOD CONDITION 방 4/화장실 2.5</p>	<p><b>MANASSAS SINGLE HOME</b> 숫세일!! \$780,000 시세 85만</p> <p>GOOD CONDITION 방 4/화장실 3.5/차고 2</p>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james2424500@yahoo.com

571.242.4500 제임스 박

**GIXNT REALTY**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VA, MD, DC, NC, TX, PA, SC, FL

#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 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http://www.nmlsconsumeraccess.org)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9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 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 주세요.

## 주택 매매 / SALE

###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 급매



**\$56만**  
알링톤 콘도  
방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매트로나 인접  
타운하우스식 콘도

##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고 1



**\$69만**  
우드브리지  
니본 랜딩 싱글홈  
방4+ 화3 차고2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제니스 박  
콜드웰뱅크 베스트부동산

주택 구매와 임대 비교

장기적 자산 형성과 안정성 원하면 구매  
시장 리스크 피하고 유연성 바라면 임대

주택을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구매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중요한 선택이다. 각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 생활 방식,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다.

▶ 초기 비용과 재정적 유연성

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집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첫 달의 월세만 있으면 되므로 초기 부담이 적다. 또한, 집을 구매하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임대할 경우 월세와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인 유연성이 더 크다.

▶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성

주택을 구매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자산 형성이다. 모기지를 상환함에 따라 주택의 소유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을 구매하면 이사를 자주 다닐 필요가 없고, 원하는 대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유지 관리와 책임

집을 구매하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유지 관리와 수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상당할 수 있

다. 반면, 임대할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택 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생활 방식과 유연성

임대는 생활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쉽게 이사할 수 있고, 직장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이나 직업적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반면, 집을 구매하면 한 곳에 정착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사를 원할 경우 집을 팔거나 임대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 시장 상황과 투자 위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하락세일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임대할 경우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서 자유로워,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임대와 구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재정적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반면, 생활의 유연성을 중시하거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임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리 정  
한바다부동산 대표

하락기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매매 없어 장기 보유 고려하고 투자해야  
안정된 세입자·탄탄한 비즈니스 선택 중요

국내 상업용 부동산은 높은 오피스 공실률과 높아진 대출 이자율로 인해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타운 내 아파트 등 주거용 유닛은 올 초까지만 해도 싸게 나온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간간히 있었으나 이제 아예 거래가 사라진 상태가 됐다. 미라클 마일에 위치한 리모텔링이 잘 되고 월 1만2000달러가 넘는 임대료가 나오는 4유닛이 235만불에 나와 있지만, 바이어 찾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높은 모기지 비용과 더불어 최근에는 퇴거 소송 등 세입자와의 분쟁이 더 많아졌다. 이로 인한 관리비 부담 때문에 55%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겨우 모기지 페이먼트만을 맞출 수 있다. 주거용 유닛 투자자는 다운페이먼트를 70% 이상 늘려야 한다. 투자율 6% 이상으로 거래를 하고 공실이 적은 유닛을 선택하는 등 철저히 수입 구조 분석 후 구매를 해야만 한다. 낮은 임대료를 가진 아파트를 플립하는 투자 전략이 어려운 이유는 유닛이 거의 안 팔리고 있어 장기 보유해야 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고 장기 보유가 가능한 분들에게만 권한다.

퇴거 소송이 진행 중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팔려는 경우, 임대료 수익이 아파트 판매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퇴거 소송 절차를 완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후에 판매해야 한다. 급하게 판매할 경우, 적법한 퇴거 소송 절차를 시작해 관련 서류를 바이어에게 디스클로징 하려야 하고, 이는 판매 가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1031 교환을 해야 할 상황이거나 또는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는 투자 분야인 그로스리마켓, 병원, 칩팩리와 같은 퀵서비스 레스토랑, 편의점 등의 Corporate 회사가 NNN 리스된 부동산에 주목하기길 권해 드린다. 안정된 세입자, 코퍼레이션 세입자 등 안정적인 테넌트와 탄탄한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 부동산을 선택할 때에 지역적인 고려와 그 부동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여러 도시에서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곳들을 주목해 보자. 남가주 호손에 위치했던 스페이스 X와 북가주 덴빌에 위치한 세브러는 모두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다. 네바다 리노와 스파크 인근에 있는 테슬라기가 팩토리에서 최근 세미트럭 조립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테네시 내슈빌에 새로운 운영 센터를 열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는 피닉스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히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돌루스가 까운 커머스와 테네시 스탠턴에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온은 포드사와 합작해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켄터키 엘리자베스타운 인근 지역에 건설 중이다. 몽고메리와 조지아 웨스트포에 현대와 기아 공장을 가지고 있던 현대가 현재 조지아 사버나 인근에 전기자동차 조립공장을 추가하고 있다.

집단지 부동산 투자 전략은 근본적이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가 부동산, 주거용 유닛, 리테일 시장 동향, 그리고 대규모 공장 건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야기

투자의 시간가치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인 복리 개념 적용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입니다. 이는 현재의 투자와 미래의 수익을 비교하여 현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돈의 시간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리와 할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리와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리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쌓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 수익률보다 실제로 얻는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연 10% 이율로 투자

했을 때, 5년 후에는 단순히 10만 달러의 10% 수익인 1만 달러가 5년 더해져서 15만 달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원금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붙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약 16만1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할인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 기간, 이자율, 미래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현재의 가치라는 네 가지 변수가 고려됩니다. 예상되는 투자 기간과 이자율, 기대 수익률을 정할 수 있다면 투자 대상 매물의 현재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10년 이상 상승하던 곡선이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할 때 부동산 판매나 구매를 해야 할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돈의 시간가치를 적용해 미래의 수익성까지 감안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 기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투자자가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 기간 미래에 도달할 가치를 추산하고, 현재의 수익으로 그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는 현재의 시장에서도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높는지 낮는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 자산을 활용한 투자가 권고

됩니다. 현재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상승한 상태라면, 이를 판매하고 원하는 투자 매물을 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교환구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유한 매물로 목표 수익률을 이미 달성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소유한 건물과 구매 대상 건물의 가격이 같은 조건인 마켓에 적절한 가격에 매매가 된다면 이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매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매물에서 기회를 찾고 계획한 투자 기간 내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여전히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렉스 유·CBRE Korea Desk 대표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트**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b>SOLD</b></p> <p><b>Bowie</b></p> <p>\$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dgewater</b></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b>SOLD</b></p> <p><b>Rockville</b></p> <p>\$280,000 콘도</p>	<p><b>COMING SOON</b></p> <p><b>Perry Hall</b></p> <p>싱글홈, 방3, 화2</p>	<p><b>UNDER CONTRACT</b></p> <p><b>Elkridge</b></p> <p>\$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lkridge</b></p> <p>\$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llicott City</b></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p><b>UNDER CONTRACT</b></p> <p><b>Ellicott City</b></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b>COMING SOON</b></p> <p><b>Rockville</b></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b>SOLD</b></p> <p><b>Cockeysville</b></p> <p>\$470,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b>Elkridge</b></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b>Sliver Spring</b></p> <p>월 \$3,500 타운홈</p>	<p><b>Germantown</b></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b>Hanover</b></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b>Germantown</b></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b>Glen Burnie</b></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 스릴러퀸의 첫 SF 도전... “히마리 없는 글, 딱 질색이죠”

(힘의 전라도 사투리)

작가 정유정(58)은 데뷔(2007)부터 지금까지 한 권의 산문집을 제외하면 오로지 소설, 그것도 장편만을 썼다. 콘텐츠가 짧아지는 시대에도 500쪽 넘는 무거운 장편을 꾸준히 썼고, 그 장편을 200만부 이상 팔았다. 신작 장편 『영원한 천국』(은행나무)은 정유정의 전매특허 스릴러에 SF를 섞었다. 인간이 자신의 뇌를 통째로 가상 공간에 업로드할 수 있는 시대, 육신이 죽어도 정신은 영생을 누리는 시대를 그렸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상 극장 ‘드림 시어터’를 설계하는 해상이 노숙인 보호시설 삼애원의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경주로부터 기이한 의뢰를 받으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1년간 글을 쓰지 않고 과학책만 읽었다”는 정유정을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은행나무 사옥에서 만났다.

-SF는 처음이다.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라리는 이 책에서 데이터가 곧 종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간조차도 무수한 데이터 중 하나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을 통째로 온라인에 업로드해 육체 없이도 영생을 누리는 세상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설로 쓰기로 했다.”

-기존 장르와 달라 힘들지 않았나.  
“공부하는 데만 꼬박 1년을 썼다. 준비 기간을 이렇게 오래 가진 것은 처음이다. 유발 하라리와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책을 많이 읽었다.”

그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적재적소에 갈등과 고난이 있고, 그걸 이겨내고 성장하



장편 외길 정유정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그는 “사랑이 시험당하고 영웅이 고난을 겪는 고전적 서사를 좋아한다”고 했다. [뉴시스]

『영원한 천국』 퍼낸 정유정 작가 뇌 업로드해 영생 누리는 세상 그려 1년간 다른 일 않고 과학책만 읽어 전매특허 ‘스릴러 모미’도 버무려

은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이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힐링 독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방향 아닌가.  
“그런 글을 쓰는 재주는 없다. (웃

음) 힘이 없다는 걸 전라도 사투리로 ‘히마리 없다’고 하는데, 나는 ‘히마리 없는’ 캐릭터를 안 좋아한다. 답답해서 죽더라도 화끈하게 죽어야지. 어떤 작가들은 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다. ‘생긴 대로 쓴다’고 할까. 앞으로도 착한 소설은 안 쓸 거다.”

그의 작품 『7년의 밤』(2011), 『28』(2013), 『종의 기원』(2016)은 ‘악의 삼부작’이라 불린다. 전염병이 돌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간 내면의 악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다. 그는 “내 책의 중요한 캐릭터는 전부 내 속에서 끄집어냈다”며 “악인 캐릭터도 하

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누구나 악한 면과 착한 면이 있는데 그중 전자를 끄집어내서 ‘악의 삼부작’을 썼다”고 했다.

그는 신작 『영원한 천국』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인공 경주가 끝내 살아가는 이야기”란 것이다.

-경주는 어떤 사람인가.  
“시니컬하고 짜질한 사람. 그렇지만 느닷없이 들이닥친 불행을 기어코 이겨 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경주가 성장하는 모습은 송고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견디고 맞서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

고 싶었다. 인간이 그런 야수성을 간직하는 건 미덕이다.”

-취재 여행은 언제 다녀왔나.  
“초고를 쓰고 캐릭터를 구체화해야 하는데, 경주가 일하는 노숙인 보호시설 삼애원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다. 유빙을 보고 싶어 일본 홋카이도에 다녀왔다.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캐릭터가 살아날 것 같았다.”

-경주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유빙인가.  
“맞다. 경주하면 동토, 빙원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 오로지 생존에만 매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꽃핀 적이 없다. 그래서 삼애원을 유빙에 둘러싸인 곳으로 그렸다.”

-등단 17년 차다.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고 싶나.

“온갖 감정적 격랑에 휘말리면서 밤을 새웠다가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새벽을 맞이하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쓰면 원이 없겠다. 나한테는 소설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1962, 켄 키시)가 그런 이야기였다.”

-글이 막힐 때는.  
“글은 원래 막히는 거다. (웃음) 마른 빨래를 쥐어 짜듯 겨우 겨우 쓴다. 일필휘지하는 재능은 없다. 버티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버티려고 운동도 한다.”

-운동은 얼마나 하나.  
“근력 운동은 20년 됐다. 체육관에서 가장 힘 세다는 소리도 듣는다. 일주일에 여섯 번 뛰는데 그중 두 번 정도는 집앞 천변을 따라 10km를 뛴다.”

홍지유 기자



## 샤라포바, 명예의 전당 팬 투표 1위



은퇴해도 여전한 인기 자랑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세계 테니스 명예의 전당 팬 투표 1위에 오르며 은퇴 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했다.  
세계 테니스 명예의 전당은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7월 임블던 경기장을 찾은 샤라포바. [로이테

최근 발표했다.  
명예의 전당 측은 “120여개 나라에서 수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샤라포바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자 수나 득표수 등 상세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샤라포바에 이어서는 마이크 브라이언, 밥 브라이언 형제 복식 조가 2위에 올랐다.

현역 시절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5차례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샤라포바는 국가 대항전인 페드컵에서도 2008년 러시아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단식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0년 은퇴한 샤라포바는 테니스 명예의 전당을 통해 “많은 표를 주신 팬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것도 큰 영광인데 팬 여러분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더욱 특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려면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그룹 및 명예의 전당 회원들의 투표에서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샤라포바는 전문가 그룹 등 투표 결과에 3% 포인트의 보너스를 받는다.

2025년 헌액 대상자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Charlie: Who's for pizza for dinner tonight?  
찰리: 오늘 저녁으로 피자 먹을 사람?  
Daniel: I am! I am!  
대니얼: 저요! 저요!  
Katie: Sounds good to me!  
케이타: 저도 좋아요!  
Annie: Just pizza, honey?  
애니: 여보, 피자만 먹어요?  
Charlie: No, we can order salads as well.  
찰리: 아니, 샐러드도 주문할 수 있어.

Annie: Maybe your sister wants to join us.  
애니: 애들 고모도 함께 먹고 싶어할 텐데.  
Charlie: Okay I'll give her a jingle.  
찰리: 알았어. 내가 전화해 볼게.  
Daniel: Can we get extra cheese on the pizza?  
대니얼: 피자에 뿌리는 치즈 추가할 수 있어요?  
Charlie: Sure. Whatever your heart desires.  
찰리: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Katie: I like pepperoni.  
케이타: 난 페페로니 추가.

who's for (something): (무엇을) 원하는 사람

(Charlie is talking to his wife and children ...)  
(찰리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한다...)

#### 기억할만한 표현

- ▶ sounds good to me: (제안 등에 찬성의 표시로) 좋습니다.
- Jim: "Let's play some golf this weekend." (짐: 이번 주말에 골프 좀 칠까요.)
- Roger: "Sounds good to me. Let's do it." (로저: 좋습니다. 칩시다.)
- ▶ give (one) a jingle: (누구에게) 전화하다.
- "Give me a jingle if you want to see a movi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영화보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 whatever your heart desires: 원하는 대로, 마음껏.  
Katie: "Mom, can I get chocolate and vanilla ice cream?" (케이타: 엄마 초콜릿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Annie: "Of course. Whatever your heart desires." (애니: 그럼. 원하는 대로 먹어.)

####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가로열쇠

(1)밥을 푸는 도구. 구두를 신을 때도 필요하죠  
(2)술 바닥에 늘어붙은 밥 (4)젓먹이를 태우고 흔들여 놀게 하거나 잠재우는 물건 (5)무엇이 묻거나 떨어져서 생긴 자국. 우유가 옷에 묻어 ~이 졌다 (6)변소 (7)소의 코청을 꿰뚫어 끼는 나무 고리 (9)순백색의 바탕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씌워서 만든 자기. 청자에 비해 소박하고 깨끗한 미를 풍긴다 (10)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라 때는 줄. 아이를 낳았을 때, 장을 담글 때, 잡병을 쫓고자 할 때 매어 놓는다 (14)무시를 당하거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 (16)술을 마실 때, 마시는 잔의 수가 짝수로 끝나는 것을 꺼림 (18)부부간의 사랑. 그 부부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이 좋다 (20)물건을 날개로 팔지 않고 모개로 팔. ↔소매 (21)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곳은?(수수께끼) (23)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가지는 모임 (24)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매겨 놓은 번호 (25)전쟁이나 재난 따위로 곤경에 빠진 백성 (26)자석 (27)해마다 한 살씩 먹조

#### 세로열쇠

(1)몽뚱하고 크게 생긴 코 (2)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 밀 따위를 굵게 갈아 반죽하여 덩이를 만들어 띄워서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다 (3)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얼씨구질씨구 ~ 좋다 (4)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게 되는 현상 (5)연줄, 낚시줄을 감는 데 쓰는 기구 (8)사발 바닥에다 작은 그릇이나 접시를 얹어 놓고 담은 밥. □경□ (11)잇따라 계속 피우는 담배 (12)설을 씬. ~ 안녕하십니까? (13)방을 담하려고 아궁이에 때는 불 (14)어떤 일의 뜻에 찬동하여 도와주기 위해 내는 돈 (15)날마다 소식을 전해 주는 간행물. 지금 보고 계신 ~은 스포츠 연예 레저 전문지인 일간스포츠 (16)한 절을 대표하고 주관하는 승려 (17)머리털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된 부분이 두 개 있는 것 (19)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 (20)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21)가장 굵고 짧은 첫째 손가락 (22)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갖고 하는 일 (24)지짐질을 할 때에 쓰는 무쇠로 만든 그릇

#### 스도쿠

	9				1	6	5	
1	5	8	7	6	3	4	9	
	6	3			5	8		
				4		2	3	9
9			6	1				
8			9			7		1
	8				9	1	4	6
4	2							
5	1		3	7	4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문제가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2	6	4	7	3	9	1	5
5	7	3	9	8	1	6	2	4
9	4	1	6	5	2	7	8	3
1	9	7	2	3	6	5	4	8
4	8	5	7	1	9	2	3	6
6	3	2	8	4	5	1	7	9
7	1	8	5	6	4	3	9	2
2	6	4	3	9	7	8	5	1
3	5	9	1	2	8	4	6	7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희생**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9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슈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위싱턴 중앙일보

##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세일즈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 무경력자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전반)  
접수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말 샵펜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감관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열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매입 / 현장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LORTON 헤어제품 수입 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or@gmail.com

애난델.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광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o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유/무경력자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위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자'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위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중앙일보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703-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리카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향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 식당/델리/제과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시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텍사스도넛센터빌(이커보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강통벤 냉장릴, 18년,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존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들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알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5.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  
여 직장인/유모 \$800  
703-350-1986

▶▶아난데일 홀디모 옆 싱글홈 워크  
아웃 반지하방 1/화1 /세탁기/부엌/유모  
\$1,5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 \$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  
▶703-477-3114

## 방렌트

▶▶아난데일 H마트옆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 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별도 출입문,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 옆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환영/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가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 부동산 매매

###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 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 한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워층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 분 이의 창출 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 4 화 3, 1/2  
▶703-768-1240  
1. 마용실: 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 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 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장·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공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택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전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전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히팅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전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라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mailto: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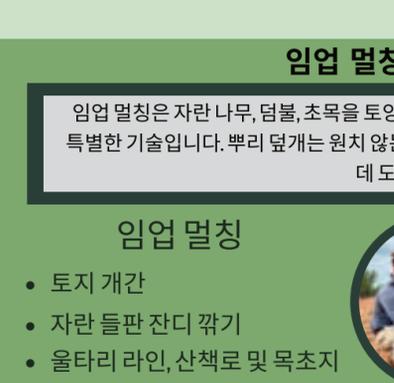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차콜온돌**  
charcoal ondul 친환경탄소복합소재

##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구인

**알짜 세탁소 에이전트**  
월매 28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세련된, 좋은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지역  
(213)249-1893 샘킴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학박사(학위취리)

###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야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야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강  
1-213-210-9720,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살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 꽃망울 생대추 따러오세요..

개장일 9월 16일 일요일 (약 2주간)

No 농약 화학비료 살충제

생대추 가격 대추밭입장료

You Pick \$5/LB \$5/1명 단 10LB 이상구매시 1LB로 반환

신선농원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농장개장시간 10시~5시 [일요일도 OPEN] 714-833-4988

건대추 11월부터 판매

신선농원

\* 210번 Freeway 이용하면 제일 편리함 (State st.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2분거리)

준비물: 운동화, 면장갑, 모자

##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한국의 최고급 김밥김/스시김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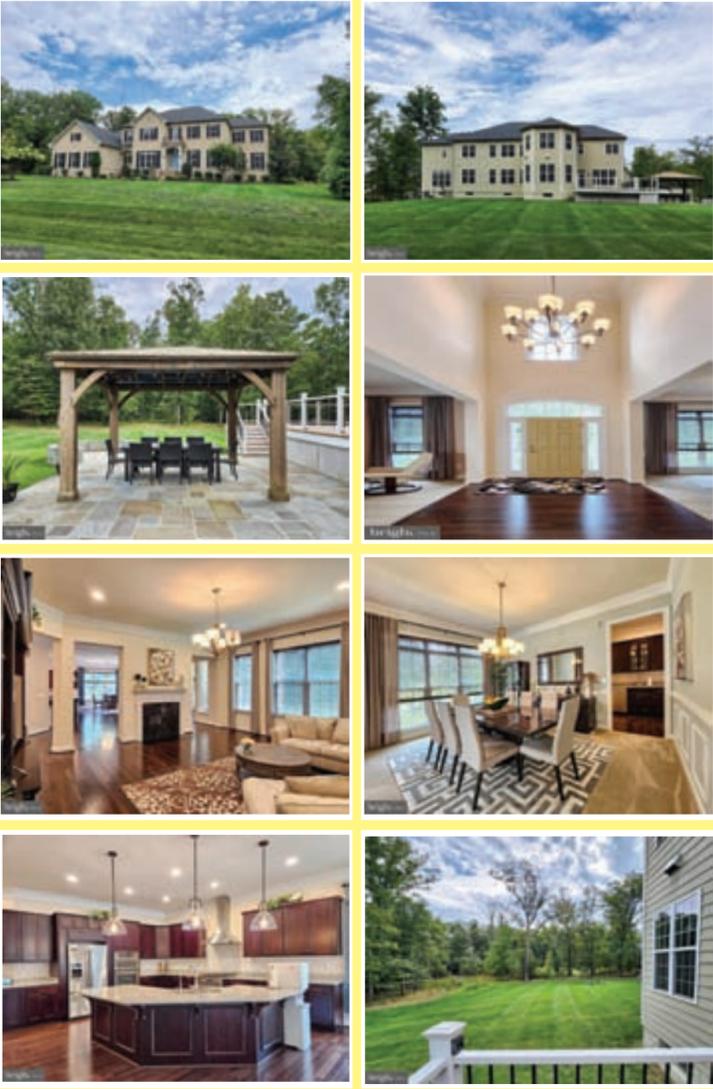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213.985.4200 DOKDOSUPPLY.COM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특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특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 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특점 WOODBRIDGE 타운홈**

잘 가꾸어진 밝고 예쁜집,  
업데이트된 나무마루, GREAT VIEW  
BELMONT BAY COM, 방3/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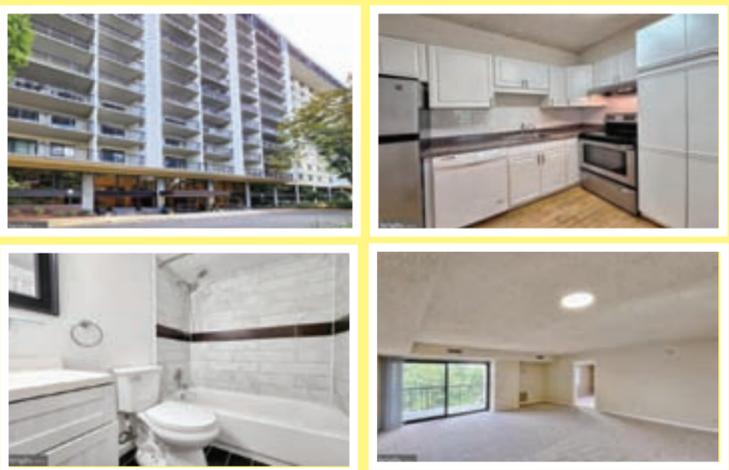
**\$625,000**



**특점 FALLS CHURCH 콘도**

아난데일 5분 거리, "GREAT VIEW"  
방2/화2/세탁기/리모델링한 9층

**\$3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